

碩士學位論文

國語 使動詞와 被動詞의 意味 構造

1977. 12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教育科

朴 泳 穆

<목 차>

제1장 서론

- 1.0. 연구의 목적
- 1.1. 연구사
- 1.2. 방법론 및 전체
- 1.3. 용어

제2장 국어 동사의 의미구조

- 2.1. 의미구조의 일반적 개념
- 2.2. 국어 동사의 의미구조 분석
 - 2.2.1. 선택 단위
 - 221-1. 상태동사(狀態動詞) 221-2. 과정동사(過程動詞)
 - 221-3. 동작동사(動作動詞) 221-4. 동작과정동사(動作過程動詞)
 - 2.2.2. 파생 단위
 - 222-1. 기동화(起動化) 222-2. 결과화(結果化)
 - 222-3. 사동화(使動化) 222-4. 비동작화(非動作化)
 - 2.2.3. 동사와 명사의 관계 유형
 - 223-1. 수혜주(受惠主) 223-2. 경험주(經驗主)
 - 223-3. 도구명사(道具名詞) 223-4. 보충명사(補充名詞)

제3장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구조

- 3.1. 국어 사동사의 의미구조 분석
 - 3.1.1.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 3.1.2. 과정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 3.1.3. 동작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 3.1.4. 동작과정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 3.2. 국어 피동사의 의미구조 분석
 - 3.2.1. 태(態)와 피동
 - 3.2.2. 정보(情報)의 새로움과 새롭지 않음
 - 3.2.3. 동작과정동사의 피동화에 대한 의미구조 분석

제4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1.0. 이 연구는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작된다.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계층적 물음과 만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미 구조란 무엇인가? 동사의 의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동사와 피동사는 동사 전체의 의미 구조와 어떤 관련을 맺는가? 왜냐하면 의미 구조에 대한 인식은 동사의 의미 구조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백히 해 줄 것이며, 동사의 의미 구조에 대한 인식은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 어떤 통찰력을 부여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언어, 그것은 신비 또는 미궁으로서 우리의 앞에 가로 놓여진다. 언어의 이 신비한 양상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구조에 대한 일정한 통찰력 없이는 언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신념은 이 연구의 처음과 끝을 면면히 흐를 것이다.

1.1. 국어의 사동사와 피동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현배(1929/1971)에서 비롯된다. 그는 동사를 객체의 지배 유무에 따라 자동과 타동, 제 힘으로 함이 있고 없음에 따라 능동과 피동, 스스로 함이 있고 없음에 따라 자동 동사와 사동 동사로 분류하고 ‘본대 동사’가 아닌 ‘바꾸힌’ 동사로서 사동사와 피동사를 인정하였다. 사동은 의사(意思)의 소치(所致)로서의 구속과 허용 그리고 운수 박복의 소치의 세 가지 의미를, 피동은 이해(利害) 가능 자연적의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또 형태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제 1,2,3 사동 및 피동으로 구분하였다. 최현배(1929/1971)의 이 연구는 그 후 비판 또는 대립되는 견해 없이 사동과 피동에 관한 주류를 형성해 왔다.

국어의 사동과 피동에 관한 특징 있는 견해를 우리는 홍기문(洪起文)의 ‘조선 문법 연구’(1947)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태(態)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동작을 ‘유연(有緣) 동작과 무연(無緣) 동작’ ‘쌍무(雙務) 동작과 편무(偏務) 동작’으로 구분하고, 태의 종류를 초월태(超越態), 사역태(使役態), 수지태(受持態), 가능태(可能態)로 나누었다. 초월태는 자연적 생리적 불가항력적 또는 원인 모를 동작인데 그곳 강제된 동작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강제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온 것을 말하고 (문이 열린다. 몸이 떨린다), 사역태는 내 동작이 강제로 남에게 이르는 것으로 자동에서 된 것은 무연 동작이 되고 타동에서 된 것은 유연 동작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아이를 웃긴다.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수지태는 남의 동작이 강제적으로 내게 이르는 것으로 타동 중에서 그것이 쌍무 동작이라면 태어미(態語尾)를 붙이어 자동으로 변하는 동시에 수지태를 만드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유연 동작이라고 하였다. (아이에게 줄린다. 어른에게 안긴다.) 가능태는 그 동작의 실현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으로 타동 중에서 만일 그것이 편무 동작이라면 태어미를 붙이어 가능태를 만드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무록 동작이 된다고 하였다. (밥이 겨우 들린다. 밥이 제법 먹힌다.) 홍기문의 견해는 문장에서 동사와 명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동 피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동·피동의 접미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남광우(1962) 및 허용(1964)에서 상세히 고구(考究)되었다. 특히 허용(許雄)(1949: 151~154)에서는 사역의 주체와 피사역체(被使役體)와의 행동에 관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명령적(구속적) 사역형, 허용적 사역형, 단순한 사역형으로서의 사역형으로 분간하고 있다.

* 이 논문은 「국어국문학 논문집」 제5집 (서울대 사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77. 12)에 게재된 것이다.

사동 피동 접미사의 변형 구조와 공기(共起)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는 김석득(1970/1971)이 있다. 동사류에서의 접사들이 어떠한 구조적 분포를 가지며 또한 이들이 기본 문장 구조에 투입 기능의 조건을 주었을 때 문장 상에 어떠한 사이클을 거쳐 산출 기능으로서의 변형을 가져오며, 이 때에 잘 짜여진 문장의 생성을 위하여 변별적 자질을 통한 공기 관계는 어떠한가를 기술, 공식화함으로써 특정 구조의 ‘기계적 업이’를 유도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그 자체 내에 이미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변형 문법의 변형이 우회적으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동과 피동과 관련되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끌어 들여 의욕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로는 이상억(李相億)(1970)이 있다. 그는 사동·피동 구문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국어의 특징적인 통사 현상과 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전제적 설명을 하였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밝혀질 수 없는 국어의 통사 현상에 대한 어떤 인식의 획득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나 그 노력에 값하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은 애석한 일이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동 및 피동의 표현 형식, 격 표현 형식의 중첩, 사동·피동 어간 형성 접미사, 원동사와 사동사의 상호 형태 비교, 사동·피동 구문의 의미 기능에 의한 분류 등을 고찰하였다.¹⁾ 특히 그는 태의 개념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피동타동사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국어의 사동·피동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접근했다는 점에서보다 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어의 사동사와 피동사는 변형문법가들에 의하여 거론되면서부터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의 관심은 주로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동과 조동사에 의한 피동·사동 사이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데로 기울어졌다. 양인석(1972)은 사동을 단형 사동과 장형 사동으로 구분하고²⁾ 단형 사동과 단형 사동이 ‘사동’의 의미에서는 동일하고 단지 장형 사동은 허용의 의미를 더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M. Shibatani(1973)는 단형 사동은 ‘직접’의 의미를 장형 사동은 ‘간접’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여 양자의 동의성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양인석(1974)은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양자의 동의성을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국어의 사동에 관한 주목할만한 연구로서 이정민(1973), 박병수(1974), 이기동(1975 및 1976), 서정수(1975) 등이 있다. 이들의 견해는 제3장에서 자세히 논급(論及)될 것이다. 한편 성광수(成光秀)(1976a 및 b)는 피동사를 접미사에 의한 피동과 ‘지다’ ‘되다’ 등에 의한 피동으로 나누고 전자를 직접피동, 후자를 간접피동이라 하였다. 그리고 직접피동은 동사의 동작 자체에 대한 피동으로 동작 피동의 의미를, 간접피동은 행위의 사실 또는 상태에 대한 피동을 목적으로 하는 상태 피동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형태적 특성을 밝히는 일에 집중되어 왔으며 의미 특성을 밝히는 일은 경시되어 왔다. 그리고 의미 특성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단순한 언어직관에 의존함으로써 일반성을 결(缺)하고 있거나, 표면구조에서의 형태상 차이에 집착한 나머지 형태상의 차이가 가져오는 의미상의 차이 밝히기에 주력함으로써 사동사와 피동사가 지닌 의미 특성의 핵심에서 벗어나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새로운 출발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다. ‘의미의 이해없이는 언어의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 의미의 이해를 위해서는 의미를 하나의 구조로서 파악할 필

1) 이상억(1970)의 의미 기능에 의한 분류는 최현배(1929/1971)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작주 주어와 보어의 유·무정성(有·無情性)을 끌어 들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여기서 단형사동은 최현배의 제1 및 2 사동을, 장형사동은 제3 사동을 뜻한다.

요가 있다는 것,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이 전달에 있는 한 의미 구조의 핵심은 동사라는 것, 동사의 의미 구조는 계층이 다른 몇 개의 하위 의미 단위로 묶을 수 있다는 것,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는 결국 이들 의미 단위의 결합이라는 것'. 우리의 이러한 사고가 (가설적인) 의미를 지니는 한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 특성은 동사의 의미 구조 파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W. L. Chafe(1970)의 의미 구조 이론을 방법론으로 하여 진행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어 동사의 의미 구조에 대한 체계 수립을 위한 시도를 해 보일 것이다. 이 체계 수립을 위하여 먼저 의미 구조의 일반적 성질에 대해 개관할 것이며, 동사의 의미 구조는 선택 단위, 파생 단위 및 명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구될 것이다. 제3장은 이 연구의 중심이 되는 장으로서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 특성을 밝히게 되는데 제2장의 의미구조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먼저 사동사는 동사의 격 선택 단위와 파생 단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동사와 명사와의 관계의 의미를 부가해서 설명할 것이다. 피동사는 new와 old라는 굴절 단위를 도입해서 동작과정동사에서 비롯되는 피동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될 것이다.

1.3. 이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특이하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그 개념을 약간씩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 용어들은 주로 Chafe(1970)에서 정의된 뜻으로 사용될 것이며, 비슷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용어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각주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것이다. Chafe(1970)의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된 용어들은 잠정적인 것이므로 적절한 용어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제2장 국어 동사의 의미 구조

2.1. 의미 구조의 일반적 성질

언어는 의미의 세계와 음성의 세계를 고도로 복잡한 방식으로 중개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한편에서 말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소리냄으로써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Humboldt에 의하면 한 언어에서 낱말을 조음시켜 말하는 것은 그 낱말이 구성되는 내면요소 즉 유한한 직관과 규칙에 따라 무한히 많은 낱말들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요소의 체계 때문이라는 것이다.³⁾ 언어는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전체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으며 다만 스스로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그것은 쉽게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어떤 신비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신비의 베일을 벗기는 방법은 언어의 심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미 구조를 밝히는 일이다. 의미 구조의 성질을 알지 못하면 잘 짜여진 발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 구조의 분석에 앞서 필요한 것은 의미에 대한 일정한 개념 규정이다. 그런데 의미란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며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⁴⁾ 분야에 따라서 필요 적절한 규정을 해 놓고 그것을 토대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능성으로 파악된다. Chafe(1970)는 ‘Ideational theory’⁵⁾라고 부르는 의미에 대한 특수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언어의 본질적인 실체며 이것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기호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관계되는 것이며, 의미 구조는 의미와 관련되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구조로서, 생각이 결과적으로 음성으로 바뀌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최초의 여과장치로 규정되어 있다.

의미 구조 분석의 첫 단계는 분석의 대상을 제한된 영역으로 한정하는 일이다. Chafe(1970)는 의미 구조의 기본 단위로서 문장(sentence)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문장은 하나의 동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문장 즉 하나의 동사를 가진 의미론적 문장은 동사와 그 동사에 따르는 명사에 대해 언급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개념 세계는 두 개의 중요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동사의 영역으로서 상태(조건, 성질)와 사건을 포괄하며, 다른 하나는 명사의 영역으로서 사물 또는 일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 둘 중에서 동사가 중심이 되며 명사는 주변적인 것이 된다. Chafe(1970)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동사는 소수의 불구적인 발화(즉 marginal utterance)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발화의 의미 구조에 나타나며 명사는 동사에 따라 나타난다. 둘째, 문장에서 동사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A. Martinét의 기능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⁶⁾ 그에 의하면 ‘통사적 기능이란 경험의 한 요소와 전체 경험 사이의 관계에 대응하는 언어적 사실’이라고 정의된다. 경험이란 현상에 대한 인간의 지각의 소산을 일컫는 말이다. 언어는 그 경험을 반영한 전달의 도구

3) N. Chomsky (1966: 86)

4) 이용주(李庸周) (1972: 103)

5) Alston (1964: 22~25)

6) A. Martinét (1961 및 1967) 그리고 박형달(1973)

다. 언어와 경험은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 경험의 한 요소에 대응하는 언어적 요소는 단소(單素)이며, 전체 경험에 대응하는 언어적 요소는 서술어(敘述語)이다. 한 단소의 통사 기능이란 단소의 서술어에 대한 관계를 말한다.

동사의 의미 구조는 어휘적 측면에서 세 개의 단위로 분류될 수 있다. 선택 단위(selectional), 파생 단위(derivational), 굴절 단위(inflectional)가 그것이다. 선택 단위는 동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기본적인 동사형을 만든다. 기본적인 동사형에는 상태동사(states), 과정동사(processes), 동작동사(actions), 동작과정동사(action-processes)가 있다. 그리고 파생 단위는 동사의 기본 자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기동화(inchoative), 결과화(resultative), 사동화(causative), 비동작화(deactivative), 비과정화(deprocessive) 등을 가진다. 굴절 단위는 동사에 외부적인 양태(modification)만을 부여하고 동사의 기본 자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단위다. 동사는 명사와의 결합 방식에 의해서도 분류될 수 있다. 즉 기본동사형, 보충동사형, 경험동사형, 수혜동사형, 위치동사형, 도구동사형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살펴온 의미 구조의 일반적 성질을 토대로 하여 다음에서는 국어 동사의 의미 구조를 간단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2.2. 국어 동사의 의미 구조

동사의 의미 구조는 어휘적 측면에서 선택 단위, 파생 단위 및 굴절 단위로 세분될 수 있다. 이들 중 굴절 단위는 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동사는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 기본 동사형 외에 수혜(benefactive)동사, 보충(completable)동사, 경험(experiential)동사, 위치(locational)동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에서 우리는 우선 선택단위에 대한 논의를 하고 파생단위, 명사와의 관계 유형의 순으로 동사의 의미 구조에 접근할 것이다.

2.2.1. 선택 단위(Selectional un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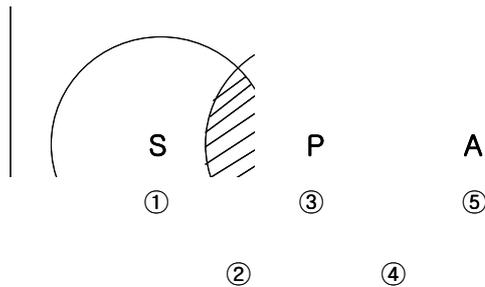
동사는 상태 및 사건을 포괄하는 인간의 개념세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상태 및 사건은 존재하는 것 즉 의식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 의식될 수 있는 것은 상태의 모습으로 선택되거나 비상태의 모습으로 선택될 것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1)로 나타낼 수 있다.⁷⁾

S -S

<그림 1> (S: 상태, -S: 비상태)

7) Rafael Abasolo (1974: 318)에서도 우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와 비슷한 그림을 보이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상태와 비상태가 공유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제외한 비상태를 우리는 동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동작과 과정을 동시에 포괄하거나 상태와 과정을 동시에 포괄하는 어떤 동사를 배제한다. 이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림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S: 상태, P: 과정, A: 동작)

위의 그림은 다음과 같은 동사의 분류를 가능케 한다. ① 상태동사 ② 상태과정동사 ③ 과정동사 ④ 동작과정동사 ⑤ 동작동사. 그러나 실제 언어 현상에서는 상태과정동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Chafe, 1970).⁸⁾ 다음에서 우리는 1. 상태동사, 2. 과정동사, 3. 동작동사, 4. 동작과정동사의 순으로 국어동사의 의미 구조를 살펴기로 한다.⁹⁾

2.2.1-1. 상태동사(States)

상태동사는 그 동사에 수반되는 명사가 어떤 상태나 조건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다. 이 경우 명사는 대상(patient)이 된다.¹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라는 물음에 대답이 될 수 없는 동사들이다. 국어의 경우 형용사로 불리워지는 것들이 상태동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하여 국어의 상태동사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 | |
|-------------------|------------------|
| (1) a. 꽃이 붉다. | b. 이 건물은 높다. |
| c.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 d. 저기에 집이 있다. |
| e. 나는 돈이 있다. | f. 그는 참 열심히다. |
| g. 철수는 학생이다. | h. 논리가 모순된다. |
| i. 이것과 저것은 같다. | j.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다. |
| k. 철수는 마실 것을 원한다. | l. 철수는 그 사실을 안다. |

a와 b는 표면구조에서 주어로 나타난 대상(patient)의 형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상태

8) 실제 언어현상과 이론적 모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9) Chafe(1970)가 설정하고 있는 ambient verb는 보편적인 언어현상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어에서는 이러한 분류의 설정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patient는 학자에 따라 그 용어를 달리한다. Quick et al(1972)는 affected, Fillmore(1938)은 objective, Anderson(1968)은 nom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대상(對象)이라 번역하여 사용한다.

동사들이다. 이러한 상태동사들은 모두 상대성(relative)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데 이 자질은 공간 감각을 표시하는 b의 경우에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c는 화자의 심리적, 감각적 의미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인데 이런 부류에는 ‘기쁘다. 춥다. 메스껍다’ 등이 있다. 이들 주관적 심리동사들은 국어에서 독특한 통사, 의미론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대상(patient)외에 경험주(experiencer)를 갖는다. d와 e의 ‘있다’는 표면구조는 동일하나 그 의미는 다르다. d에는 존재의 의미가 e에는 소유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그리고 e의 ‘나’는 수혜주(beneficiary)¹¹⁾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있다’는 국어에서 심상치 않은 문체를 안고 있는 것인데 과생단위의 하나인 결과화파생(結果化派生)에도 참여한다. f와 g에는 국어의 미궁이라고 생각되는 ‘이다’가 사용되었다. ‘이다’는 의미론적 파생 단위와 구별되는 서술화표(predicativizer)의 기능을 가지면서 지정(指定)이라는 그 자체의 고유 의미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f가 g보다 상태성의 의미를 뚜렷이 나타내는 것은 ‘열심’의 의미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h에는 ‘이다’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인식되는 ‘되다’가 사용되었다. ‘되다’는 일반적으로 ‘과정성’의 어휘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h에서는 verblizer 즉 동사화표(動詞化表)의 기능을 한다. ‘이 답을 돌아서 2분쯤 가면 창경원이 됩니다’ ‘305호실이 바로 손님방이 됩니다’의 ‘되다’도 같은 기능을 가진다. i는 소위 비교의 상태동사가 사용된 동사이다. j는 동작화표(動作化表) ‘하’를 가진 문장이다. 상태성의 의미는 ‘따뜻’에서 비롯된다. k와 l에는 주관적 심리동사가 사용된 c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심리적 경험동사가 사용되었다. 이들은 흔히 타동사로 인식되어 온 것인데 동작성이나 과정성의 의미보다는 상태성의 의미를 보다 뚜렷이 나타낸다.

2.2.1-2. 과정동사(Processes)

과정동사는 그 동사에 수반되는 명사의 어떤 상태 또는 조건이 다른 상태 또는 조건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동사다. 무슨 일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이 될 수 있는 동사들이다. 이 경우 그 명사는 주로 대상(patient)이 된다. 국어의 경우 본래의 과정동사는 드물고 의미적 파생단위의 첨가로 인하여 과정성을 표현한다.

- (2) a. 물이 (점점) 준다.
- b. 꽃이 (차츰) 붉는다.
- c. 접시가 깨어졌다.
- d. 종이가 (잘) 잘린다.
- e. 온돌이 (점점) 식어간다.

a의 경우는 본래의 과정동사로서 ‘마르다’ ‘생기다’ ‘죽다’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b의 경우는 상태동사에 표면구조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동화파생(inchoative)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¹²⁾ 국어에서는 이런 부류가 많지 않다. ‘늡다’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국어의 과정

11) Beneficiary라는 용어는 Chafe(1970)에서 사용되었고 Quirk et al(1972)에서는 Recipient로 Fillmore(1968)에서는 Dative, Benefactive, Fillmore(1971)에서는 Goal, Location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 ‘수혜주(受惠主)’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12) ‘붉는다’가 과정성의 의미를 가지는 까닭을 굴절단위 ‘늡다’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구조에

동사는 표면구조에서 대부분 ‘지’의 첨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지’는 기동화 파생단위 (inchoative)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검어지다, 밝아지다, 더워지다, 뜨거워지다, 빨라지다, 높아지다, 좁아지다, 무서워지다, 시끄러워지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c의 ‘지’는 기동화 파생단위가 아니라, 비동작화 파생단위의 기능을 한다. 즉 동작과정동사에서 파생된 과정동사다. d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의 경우는 ‘식다’에 ‘가다’가 결합되어 과정성의 의미를 보다 뚜렷이 해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다’의 의미는 과정성 그 자체에만 참여하지는 않는다. ‘가다’는 ‘오다’와 대립하여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화자의 의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¹³⁾

2.2.1-3. 동작동사(Actions)

동작동사는 상태 또는 상태의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고 누가 한 일, 동작성 또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다. 그 문장에 사용된 명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물음에 답이 될 수 있는 동사다. 동작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명사는 대상(patient)이 될 수 없고 동작주(agent)가 된다. 다음 문장에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동작동사다.

- (3) a. 철수가 뛰어 간다.
- b. 철수가 길을 간다.
- c. 철수가 춤을 춘다.
- d. 철수가 학교를 간다.

a는 동작주인 ‘철수’의 동작을 나타낸다. 움직임의 동사는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한다 (Gruber, 1970). b는 ‘길’이 대상(patient)이 될 수 없으므로 역시 동작동사다. 이 경우 ‘길’은 위치명사(locative)다. c는 소위 동족(同族) 명사가 사용된 동작동사문이다. 이 경우 ‘춤’은 대상(patient)이 아니고 보충명사로서 그 동사의 동작을 보충(complement)해 주는 구실을 한다. d는 표면구조를 중시하는 학자들에 의해 흔히 타동사로 불리어져 왔으나 ‘학교’ 역시 대상이 아니고 위치명사로서 기능한다.¹⁴⁾

2.2.1-4. 동작과정동사(Action-processes)

동작과정동사는 동작성과 과정성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과정성의 의미로는 그 동사에 수반되는 명사인 대상(patient)의 조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며, 동작성의 의미로는 동작주가 무엇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동사는 동작주가 무엇을 하였느냐? 대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두개의 물음에 대해 동시에 답이 될 수 있다. 국어의 경우 주로 타동사가 이 동작과정동사의 부류에 속한다.

서 ‘뿔다’가 과정성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표면구조에서 ‘는다’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뿔다’는 이러한 직접적인 파생을 불허한다. 그리고 사망, 변화, 침몰, 냉각, 진화, 진보, 발전 등의 동작성명사도 과정성을 나타낸다.

13) 이기동(1977: 139~160)은 ‘오다’ ‘가다’의 의미를 장소이동, 동작계속, 상태변화, 감각적변화,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14) Chafe(1970)는 영어의 동작동사문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Michael ran. The man laughed. Harriet sang. The tiger pounced.

- (4) a. 순이가 접시를 깨었다.
 b. 철수가 창문을 열었다.
 c. 고양이가 쥐를 죽였다.
 d. 철수가 개에게 고기를 먹였다.

위의 예문에서 동작주는 ‘순이’ ‘철수’ ‘고양이’다. 그리고 동작주의 동작으로 말미암아 상태 또는 조건에 어떤 변화를 입은 대상은 ‘접시’ ‘창문’ ‘쥐’ ‘고기’ 등이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들은 모두 동작성과 과정성을 공유하는 동작과정동사를 지니고 있다. d의 경우는 ‘개가 고기를 먹다’라는 문장에서 사동파생(使動派生)된 것으로 두 개의 동작주가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철수가 보다 기본적인 동작주인 ‘개’는 동작주의 기능에서 수혜주(beneficiary)의 기능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각 선택단위들은 어휘단위로 세분화된다.¹⁵⁾

2.2.2. 파생단위(Derivational units)

2.2.2-1. 기동화(Inchoative)

본래는 상태동사이던 것이 어떤 경우에는 과정성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Chafe(1970)는 이러한 파생단위를 기동화(inchoative)라 부르고 있다. 다음 예문들을 통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 (5) a. 문이 열려 있다.
 b. 길이 넓다.

a의 경우 열려 있는 상태는 절대적(absolutive)이거나 고정된 개념이다. 그러나 b의 넓은 상태는 상대적(relative)이다. 넓이는 본래 대상 사이의 거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무엇이 넓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어떤 기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기준은 ‘넓다’라는 개념 그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넓다’라고 표현되는 대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길이 넓다’와 ‘책상이 넓다’를 비교해 보면 ‘넓은 길’의 기준이 ‘넓은 책상’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열려 있다’의 경우에는 문이 열려 있든 상자가 열려 있든 열려 있는 기준점은 동일하다. 우리는 상대적인 특징을 가진 동사에 상대성(relative)이라는 의미단위를 부여할 수 있다.(Chafe, 1970: 119~121)

다음과 같은 과정성의 문장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 변화는 시간 또는 공간을 통하여 점점 혹은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이다.

- (6) a. 문이 열린다.
 b. 길이 넓어진다.

15) 동사와 선택단위와 어휘단위사이의 관계는 ‘동사>선택단위>어휘단위’의 관계로 나타난다. (어휘단위: 높다, 죽다, 가다, 깨다 등)

a에서의 변화는 대상(patient)인 문이 관여적인 어떤 특징 즉 ‘문의 열림’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갖는 상태로 나아가는 변화이다. b에서의 변화는 넓이의 연속선을 따라 그 특질의 작은 정도에서 큰 정도로 약간의 거리를 이동하는 변화이다. 즉 단순히 넓은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길이 넓어진다’는 ‘길이 넓다’와는 다르다. 어떤 기준점에 따라 넓을 수도 있고 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정동사도 상대성(relative)의 특질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의 b는 (5)의 b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처럼 표면 구조에서 접사를 가질 때는 파생의 방향을 쉽게 알아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내성(introspec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표면구조에서의 접사의 첨가와 우리의 내성(內省)이 대립될 경우에는 내성 쪽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이다.¹⁶⁾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파생규칙을 세울 수 있다.

(규칙-1) 상태동사 - → 과정동사
어근 어근+기동화

기동화(起動化)는 새로운 종류의 의미단위 즉 파생단위다. 파생단위는 하나의 어휘단위를 다른 종류의 어휘단위로 바꾸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 자신의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파생규칙은 그것이 관련되는 형태의 모든 동사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동화도 모든 상태에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¹⁷⁾

- (7) a. 꽃이 붉다.
- b. 꽃이 있다.

위의 두 문장에는 모두 상태동사가 사용되어 있다. a는 정상(性狀)을 b는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최현배, 1971: 482~489) a는 다음과 같이 과정동사의 문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 (8) a-1. 꽃이 (점점) 붉는다.
- a-2. 꽃이 (점점) 붉게 된다.
- a-3. 꽃이 (점점) 붉어진다.

a-1의 경우는 가장 순수하게 기동화파생을 입은 것으로 생각되는 데 ‘많이 컸구나’ ‘많이 늙었구나’ 등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a-2와 a-3의 문장은 상태동사가 과정동사로 파생한 문장으로서 국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와 ‘지’가 기동화 이상의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즉 ‘되’와 ‘지’가 가진 의미기능 중의 어느 하나가 기동화

16) Chafe(1970)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a에서 b가 파생된 것이지, b에서 a가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증거로 삼고 있다. a. Michael is tired. b. Michael tire easily, 국어에서도 (6)의 a가 (5)의 a에서 파생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17) inchoative의 사전적인 뜻은 beginning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becomming의 뜻에 가깝게 사용되었다. 영어의 경우 heavy, wet, deaf 등은 기동화 파생을 입지 않는다. ‘- →’는 임의적임을 표시.

이며 위의 문장에는 그 기동화가 주로 작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¹⁸⁾ 남은 문제는 a-2의 문장과 a-3의 문장이 의미구조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구별을 하고자 한다. 즉 ‘게 되다’는 어떤 기준점을 향하여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어 지다’는 어떤 기준점이나 변화의 결과보다는 변화하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7)의 b문장은 (7)의 a문장과 같은 파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즉 다음과 같은 문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9) * b-1. 꽃이 (점점) 있다.
- * b-2. 꽃이 (점점) 있게 된다.
- * b-3. 꽃이 (점점) 있어 진다.

이러한 사실은 ‘있다’라는 동사가 다른 상태동사와는 다른 어떤 특질을 지녔음을 나타내 준다. ‘있다’라는 것 즉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인간의 의미세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의미세계에 들어 온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 전제가 된다. 있지 않는 것은 붙을 수도 없으며 붙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일단 있는 것은 있는 것이며 차츰 차츰 있어질 수도 있게 될 수도 없는 가장 원초적이며 절대적인 상태성이다.

2.2.2-2. 결과화(Resultative)

본래는 상태동사이던 것이 기동화에 의해 과정동사로 파생되는 것과는 반대로 본래의 과정동사가 상태동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태동사화에 참여하는 파생단위를 결과화(Resultative)라 한다.

- (10) a. 접시가 깨어진다.
- b. 접시가 깨어져 있다.

위의 예문 b는 상태성을 a는 과정성을 지닌 문장이다. 우리는 여기서 b가 a에서 결과화 파생을 입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의 파생규칙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규칙-2) 과정동사 - → 상태동사
 어근 어근+결과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규칙 (-1)과 (-2)의 순환성이다. 이 순환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과정동사
어근+기동화+결과화……+기동화

18) Rafael Abasolo(1974)는 ‘지’의 의미를 inchoative, decativative, become derivation으로 ‘되’의 의미를 inchoative, resulative, become, literary, potentiative, determinative derivation 및 processive verbalizer, processive predicativizer, passive inflection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순환성을 피하기 위해 결과화 다음에서는 기동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어떤 제약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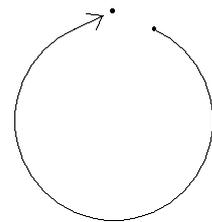
어떤 상태나 조건의 변화, 그것은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다. 변화는 결과를 전제한다. 여기에서 바로 인간 언어에는 결과화 파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검토해 본다.

- (11) a. 호랑이가 죽는다.
- b. 얼음이 녹는다.
- c. 물이 (점점) 준다.²⁰⁾
- (12) a. 호랑이가 죽었다.
- b. 얼음이 녹았다.
- c. 물이 줄었다.

과정동사문 (11)에 대응하는 (12)의 각 문장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 어떤 상태나 조건의 변화가 일단 완료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다. 이것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완료된 것, 그것은 아직 과정의 일부다.

<그림 3>

둘째는 어떤 상태나 조건의 변화가 일단 완료되어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다. 이것을 옆의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a'. 호랑이가 죽어있다. b'. 얼음이 녹아있다. c'. 물이 줄어 있다.처럼 '있다'를 첨가하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그림 4>

2.2.2-3. 사동화(Causative)²¹⁾

상태동사가 과정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될 경우에는 기동화파생이 작용하고 과정동사가 상태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결과화파생이 작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과정동사가 동작과정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동화(causative)가 작용한다.²²⁾

19) Chafe(1970)는 inchoative 다음에서 resultative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제약규칙을 설정하고 있으나 국어의 경우는 그 반대의 제약규칙이 필요해 보인다. (높아져 있다)

20) '죽다, 녹다, 줄다' 등은 본래 과정 동사로 생각되는 것들이다. 영어에서는 melt, sink, break 등을 들 수 있다.(Chafe, 1970)

21) 여기에 사용된 사동화(causative)란 용어는 우리가 흔히 불러왔던 사동(使動)과는 그 뜻이 다르다. 오히려 동작화(動作化)와 비슷한 뜻이다.

- (13) a. 철수가 얼음을 녹였다.
 b. 인부들이 길을 넓혔다.

위의 예문에는 그 속에 다음 문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14) a. 얼음이 녹았다.
 b. 길이 넓어졌다.

그리고 (13)의 각 문장에는 변화의 원인으로서는 어떤 사람, 흔히 사역의 주체라고 말하여지는 변화의 교사자(敎唆者)가 나타나 있다. 즉 (13)의 문장들은 대상(patient)뿐만 아니라 동작주(agent)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동사도 과정성과 동작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 경우 과정성이 보다 원초적인 것으로 보이며 동작성은 사동화과생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사동과생은 다음과 같이 규칙화 할 수 있다.

(규칙-3) 과정동사 - → 과정·동작동사
어근 어근+사동화

2.2.2-4. 비동작화(Deactivate)²³⁾

상태동사와 과정동사가 기동화와 결과화에 의해 상호 교체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과정동사와 동작과정동사 사이에도 이런 상호교체가 가능하다. 우리는 앞에서 과정동사의 동작과정동사화에는 사동화과생이 작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동작과정동사의 과정동사화에 비동작화(deactivative)과생이 작용하는 것을 살펴기로 한다.

- (15) a. 그 종이는 (쉽게) 잘린다.
 b. 그 돌은 (쉽게) 들린다.

‘자르다’와 ‘들다’는 본래 동작과정동사인데 위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동작성의 의미가 없어지고 단순히 과정성의 의미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과생을 다음과 같이 규칙화 할 수 있다.

(규칙-4) 과정·동작동사 - → 과정동사
어근 어근+비동작화

국어의 소위 피동변형(被動變形)의 일부가 비동작화과생을 입는다.

22) Chafe(1970)는 causative의 예로서 다음 문장을 들었다. ○ Linda broke the dish. (The dish broke.) ○ Linda opened the door. (The door opened.) ○ Linda is heating the soup. (The soup is heating.) 괄호 속은 대응되는 과정동사문이다.

23) 이 용어의 뜻은 탈동작화(脫動作化)에 가깝다. 탈동작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까닭은 그 어색함 때문이다.

- (16) a. 철수가 줄을 끊었다.
- b. 순경이 도둑을 잡았다.
- c. 정원사가 그 나뭇가지를 잘랐다.
- (17) a. 줄이 철수에게 끊기었다.
- b. 도둑이 순경에게 잡히었다.
- c. 그 나뭇가지가 정원사에게 잘리었다.
- (16) a. 이 줄은 잘 끊긴다.
- b. 요즘은 도둑이 잘 잡힌다.
- c. 이 나뭇가지는 너무 쉽게 잘린다.

능동사문(能動詞文) (16)에 대응하는 소위 피동사문(被動詞文)은 (17)이다. 그리고 (17)에 사용된 동사들은 (16)과 마찬가지로 동작과정동사다. 그러나 (18)은 (17)과는 달리 (16)에 대응하는 피동사문이 아니며 그 동사도 과정동사다. 즉 (18)의 동사들에는 동작성이 없어졌으며 어떤 동작주도 전제되지 않았고, 단지 대상(patient)에 일어나는 상태, 조건의 변화에 의미의 중점이 놓여진다. 그러므로 (18)에 사용된 동사들은 비동작화과생을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과생단위는 표면구조에서 {이} 또는 ‘지’로 나타난다. 이처럼 동작성이 없어진 과정동사에도 결과화과생(resultative)이 적용될 수 있다.²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기동화, 결과화, 사동화, 비동작화과생의 상호작용 방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동화)		(사동화)
상태동사	과정동사		동작과정동사
	(결과화)		(비동작화)

2.2.3. 동사와 명사의 관계 유형

한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동사에는 하나 이상의 명사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동사는 명사와 어떤 의미론적 관계를 갖는다.²⁵⁾ 동사와 이러한 관계를 갖는 명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을 갖는 것은 동작주(agent)의 대상(patient)이다. 이들은 의미구조에서 동사의 기본 유형인 상태, 과정, 동작 및 동작과정의 동사에 결합된다. 그러나 이들이 동사와 명사의 결합관계를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들 기본적인 결합관계 외에도 명사는 경험주(Experiences), 수혜주(Beneficiary), 도구(Instrument), 보충(Complement), 위치(Location) 등의 의미역할을 갖는다. 우리는 다음에서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특성 밝히기와 관련되는 경험주, 수혜주, 도구명사, 보충명사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들을 고찰하는 자리에서 동작주와 대상(patient)도 함께 다루어질 것이다.

24) Chafe(1970)는 비과정화(deprocessive)과생도 설정하고 있으나 국어의 경우는 이러한 과생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25) 의미론적 관계란 명사가 동사에 대해 가지는 개념적인 관계로서의 의미역할(semantic role)을 말한다. 흔히 내면격(deep case)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형태론적 격(格)의 굴절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G. L. Dillon (1977: 68-70) 참조.

2.2.3-1. 경험주(Experiencer)

- (19) a. 철수는 마실 것을 원한다.
 b. 철수는 뱀을 보았다.
 c. 뱀장수가 철수에게 뱀을 보였다.

(19)에 사용된 철수는 표면구조상으로는 동작주(agent)처럼 보이나 사실은 동작주와는 다른 기능을 갖는다. 즉 철수는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자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심리적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인가 부과된 또는 임무지어진 사람으로서 무엇이 마시고 싶어지고, 뱀이 보여서 그의 정신 속에 들어왔게 된 사람이다. 이런 명사를 경험주(experiencer)라 하고 경험주를 동반하는 동사를 경험동사(experiential)라 할 수 있다.²⁶⁾ a문장에는 경험상태동사가 사용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동사는 문장에서 대상뿐만 아니라 경험주명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문장은 상태가 아닌 어떤 사건을 포함하는 경험과정동사가 사용되어 있다. ‘철수의 경험에 의하면 뱀이 보였다’라는 뜻으로 ‘철수’는 경험주로 ‘보다’는 경험과정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경험동사는 비동작성을 본질로 하는 것을 생각된다. c문장의 동사는 b문장의 동사가 사동화과생을 입어 나타난 것이다. 이 동사는 동작과정동사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동작성은 경험주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동작주와 관련된다. c문장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gt
		exp	명사
verb	pat	명사	<u>뱀장수</u>
과정	명사	<u>철수</u>	
동작	<u>뱀</u>		
경험			
<u>보이다</u>			

국어의 경우 심리적 상태동사들은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수혜주를 갖는다.

- (20) a. 나는 고향이 그리웠다. a'. 철수는 고향이 그리웠다.
 b. 철수는 그 영화가 슬펐다.
 c. 철수는 그 일이 귀찮았다.
 d. 철수는 호랑이가 무서웠다.
 e. 철수는 (철수의) 배가 고팠다.
 f. 철수는 해가 눈이 부셨다.
 g. 철수는 그 사실이 억울했다.

26) Chafe(1970: 144·147)

(20)의 각 문장에 사용된 ‘철수’는 모두 경험주다. a와 a’의 차이는 화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그리고 ‘고향’ ‘영화’ ‘일’ ‘호랑이’ ‘해’ ‘사실’ 등은 넓은 뜻의 대상(patient)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이들이 경험동사에 대해 가지는 공통적인 역할은 자극체(刺戟體)로서의 기능이다.²⁷⁾ 유정성(aminante)과 무정성(無情性)의 관점에서 이들 대상들은 구분될 수 있다. 즉 d의 호랑이는 동작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호랑이가 철수를 무섭게 했다.) 그리고 b, c, f, g의 영화, 일, 해, 사실 등은 자마재적 동작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 영화가 철수를 슬프게 했다.) 그러나 b, e의 고향, 배 등은 이런 기능을 갖지 못한다. (고향이 나를 그럽게 했다.)

국어에서 소위 지각동사(知覺動詞)들 역시 경험주를 갖는다.

- (21) a. 철수는 그것을 보았다.
 b. 철수는 그것을 후회한다.
 c. 철수는 그것을 안다.
 d. 철수는 그것을 생각한다.

(21)의 각문장에 사용된 동사들이 보문(補文)을 갖게 되면 사실성(factivity)이 문제된다. 즉 a와 c의 경험동사들은 외적사실을 b는 내적사실을 d는 사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음을 그 의미특질로 가진다.

2.2.3-2. 수혜주(Beneficiary)

표면구조상으로는 동작주처럼 나타나지만 사실은 동작주(agent)가 아니면서 그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 의해 전달되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명사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역할을 갖는 명사를 수혜주(beneficiary), 이 명사를 동반하는 동사를 수혜동사(benefactive)라 할 수 있다.²⁸⁾

- (22) a. 철수는 상품권을 가졌다.
 b. 철수는 상품권을 잃었다.
 c. 철수는 김씨에게 책을 샀다.
 d. 영이는 (철수를 위해) 웨타를 찼다.

a에는 상태동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상품권이 철수의 소유하에 있다’의 뜻을 가진다. 이 경우 소유하는 대상(patient)의 성질에 따라 일시적, 비일시적, 개인적 소유로 구분될 수 있으며 또한 가양성(可讓性) 소유와 불가양성(不可讓性) 소유로도 구분될 수 있다. b에는 과정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과정동사는 antonym 파생을 입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²⁹⁾ 또 ‘김씨가 철수에게 책을 팔았다’와 동의로 해석되는 동작과정동사문 c도 antonym

27) Lee, Chung Min(1976: 256-296)

28) Chafe(1970: 147-151)

29) Chafe(1970)는 antonym 파생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lose=find+ antonym ○ self=buy+ antonym

파생을 입을 수 있다. c에서 철수는 동작주이며 김씨는 수혜주다. ‘사다’는 본래의 수혜적 동작과정동사로 생각된다. 이러한 동사에는 ‘팔다’ ‘보내다’ ‘주다’ 등이 있다. d의 ‘짜다’와 같은 동작동사는 수의적(隨意的)으로 수혜주를 가질 수 있는 동사다. 국어에서 수혜주를 갖는 동사는 표면구조에서 ‘주다’를 가짐으로써 수혜성을 명백하게 드러낸다.³⁰⁾

- (23) a. 철수는 순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b. 철수는 순이에게 선물을 사 주었다.
 c. 어머니가 아기에게 젓을 먹여 주었다.
 d. 어머니가 아기를 잠을 재워 주었다.
 e. 순이는 철수에게 웨타를 짜 주었다.

수혜주 명사는 표면구조상의 격표지(格標識)로서 ‘에게’를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을 위해’를 가지면 수혜주의 의미가 보다 명백해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애매성을 지니게 된다.

- (24) a. 철수는 순이를 위해 선물을 주었다.

(24)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순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에서는 수혜주가 해로움을 입는다.

- (25) a. 철수가 시계를 잃어버렸다.
 b. 강도가 철수에게서 시계를 빼앗았다.

‘중요하다’ ‘해롭다’ 등의 심리적 상태동사들도 수혜주를 갖는다.

- (26) a. 그 사실이 너에게 (중요하다. 유리하다. 유익하다……)
 b. 그 사실이 너에게 (해롭다. 나쁘다……)

2.2.3-3. 도구 명사(Instrument)

동사의 동작이나 상태에 있어서 원인적으로 내포된 무생적(無生的)인 힘이나 대상으로서 사건의 직접 원인이나 자극을 뜻하는 것을 격문법(格文法)에서는 구격(具格)이라 한다. Chafe(1970)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도구명사(instrument)를 설정하고 있다. 동사와 명사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작주(agent) 대상(patient) 등과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분명하게 도구명사로 인식되는 예문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는 예문의 순서로 검토해 본다.

- (27) a. 철수가 칼로 밧줄을 끊었다.

30) 부정성의 명사도 ‘주다’ 동사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꽃에 물을 준다. 밭에 거름을 준다. 우승팀에 우승기를 준다. 등) 이 경우 ‘꽃’ ‘밭’ ‘우승팀’ 등이 수혜주로서의 의미기능을 갖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들을 잠재적 수혜주로 취급하든지,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다루어 별도의 설명 규칙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b. 철수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27)의 ‘칼’과 ‘열쇠’는 도구명사(instrument)다. 이들은 그 문장이 나타내는 조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동작주와 가장 비슷한 자리에서 인식되는 명사다. 그리고 이러한 명사를 갖는 동사들은 동작과정동사다. 이 동작과정동사는 비상대성(non relative)의 특질을 갖는데 이 경우 (27)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밧줄을 칼로 끊는다는 동작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경우와 칼로서 밧줄을 끊는 데 성공했음을 나타내는 경우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³¹⁾ 후자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 ‘성공적’이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8) a. 밧줄이 칼로 끊어졌다.

b. 문이 열쇠로 열렸다.

(28)은 과정동사문인데 ‘성공적’인 의미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다음 문장들에서는 도구명사 여부를 확실히 가려내기가 어렵다.

(29) a. 그 열쇠가 자물쇠를 열었다.

b. 그 소년은 피의 부족으로 죽었다.

c. 그 공이 유리창을 깨었다.

d. 철수는 자기도 모르게 칼에 비었다.

e. 그 바위가 기계를 망가뜨렸다.

f. 바람이 연을 날렸다.

g. 자동차가 개를 죽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동작주의 개념을 보다 명백하게 하는 것이다. 동작주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Fillmore(1968)는 ‘동작을 일으키는 자’의 뜻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동작이 의도적이나 아니냐 하는 점에서 애매하다. Quirk(1972)는 의도성(Intentionality)을 동작주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Chafe(1970)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데 원천이 되는 힘(self energy-source)을 가진 것을 동작주의 개념으로 사용했다. 그에게는 긍정성의 명사뿐 아니라 부정성의 명사까지도 잠재적동작주(potent)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Cruse(1973)는 동작주(agentivity)가 기본적인 의미단위가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네 가지로 하위분류했다.³²⁾ 이들의 이론을 참고로 하여 (29)의 각 문장들을 검토해 본다.

도구명사의 가장 일반적인 뜻은 ‘어떤 동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비의도성, 피통제성(被統制性) 등의 특질을 지닌다. a에서 ‘열쇠’는 도구명사다. b의 ‘피의 부족’은 도구 명사가 아닌 원인명사로 생각된다. c의 ‘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도구로 해석될 경우고 하나는 동작주로 해석되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는 (타자가 친 공이 날아갔다. 그 날아간) 공이 유리창을 깨뜨리는 상황이다. d의 ‘철수’는 비의도적이지만 동작주로 기능하며 ‘칼’은 도구명사다. e와 g의 ‘바위’와 ‘자동차’도 c의 ‘공’처럼 상황에 따라 두 가지

31) Chafe(1970: 152-156)는 후자의 경우에 successful이라는 의미단위를 부여했다.

32) Cruse(1973: 11-23)는 ‘do test’에 의해 volitive, effective, initiative, agentive의 넷으로 나누었다.

의미 기능을 갖는다. f의 ‘바람’은 흔히 방격(方格)으로 불리워지는 것인데 잠재적 동작주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동사에 대한 명사의 의미론적 역할은 표면구조의 통사적 제약이나 격표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어의 도구명사는 흔히 ‘로’를 갖는다. 그러나 반드시 ‘로’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또 ‘로’는 도구명사 이외의 다른 명사의 역할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된다.³³⁾

2.2.3-4. 보충 명사(Complement)

어떤 동작은 그 동작 속에 그 동작과 밀접하게 관련된 명사적 개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즉 ‘추다’라는 동작 속에는 ‘춤’이, ‘신다’라는 동작 속에는 ‘신’이 공유되어 있는 것 등이 그 예다. 이 공유된 명사적 개념이 동사 밖으로 나타날 경우 이 명사는 보충명사가 된다.³⁴⁾

- (30) a. 영이가 노래를 불렀다.
b. 철수가 뽀를 뒀었다.
c. 그 책은 (무게가) 삼 파운드가 나간다.
d. 철수가 공부를 한다.

위의 각 문장에 사용된 보충명사들은 어떤 상태에 있거나,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동사의 의미를 보다 좁게 규정하거나 보충한다. 문장 a, b 및 d에는 동작동사가 c에는 상태동사가 사용되었다. b에서의 보충명사 ‘노래’는 그 의미가 더 세분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즉 ‘아리랑’을 불렀다. ‘싼다루치아를 불렀다’ 등이 그 예다. b의 ‘뽀’는 흔히 동족명사로 불려온 것인데 ‘잠’ ‘춤’ ‘꿈’ ‘신’ 등이 모두 b의 ‘뽀’와 같은 보충명사로서 기능할 수 있다. c 문장은 국어의 소위 이중주어 문체와 관련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³⁵⁾ 여기서 우리는 ‘무게’와 ‘삼파운드’를 ‘나간다’의 보충명사로 보고자 한다. d의 ‘공부’도 ‘하다’의 보충명사로 취급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경우의 ‘하다’를 의미적으로도 단순한 허형태(虛形態)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³⁶⁾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명사의 의미역할 유형 외에도 다른 의미역할의 유형이 있으나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구(考究)는 빠뜨린다.

동사가 선택단위로 상태동사, 동작동사 등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사도 선택단위를 가질 수 있다. 다음에서 명사의 각 선택단위를 Chafe(1970)의 이론을 참고하여 정리해 보이고 3장에서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특성을 밝히는 작업으로 들어가하고자 한다.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면 count, 동작동사의 동작주로 기능할 수 있으면 potent,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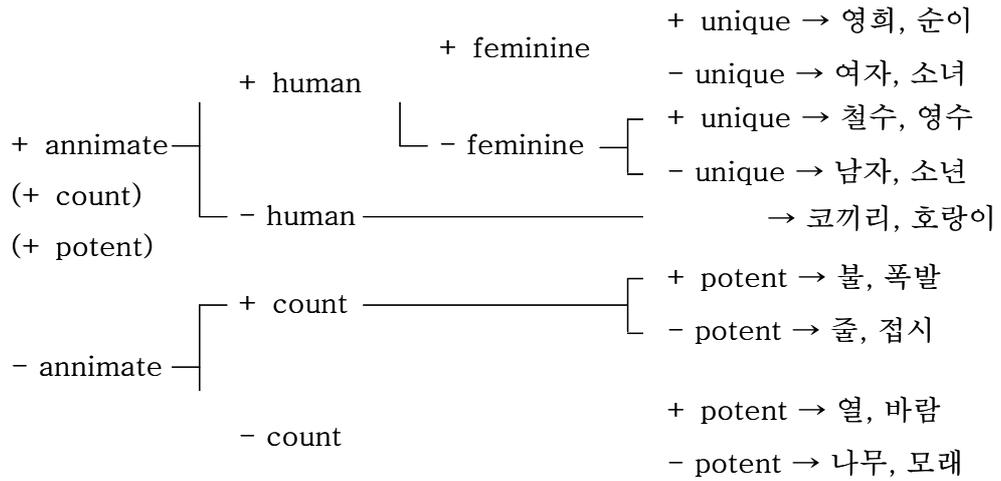
33) 임흥빈(1974)은 ‘로’의 총체적인 의미를 ‘선택’으로 신창순(1976)은 ‘지정’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송병학(1976)은 Nilsen(1972, 1975)의 이론을 국어에 적용하여 국어 도구격의 의미특질을 분석해보았는데, 그는 도구격이 심층부의 의미 관계 즉, 동사와 명사간의 관계에 의거하여 분석내지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4) Chafe(1970: 156-158)

35) ‘무게’와 ‘삼파운드’ 사이의 관계를 양인석(1972)은 total/quant, 이익섭(1973)은 동격으로 처리하였다.

36) 변형문법이 국어 연구에 도입되면서부터 ‘하’에 대한 통사론적 또는 의미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다. d의 ‘하’가 심층 주동사나 아니면 단순한 형식동사나 하는 데는 대립된 견해가 있다. 박병수(1974, 1976) 및 서정수(1975)

정성을 가졌으면 animate, 그것이 인간이니 경우는 human, 그 인간의 성이 남성이 아니면 feminine, 그리고 그 명사가 개별적인 한 인간에 한정되면 unique의 특성을 갖는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⁷⁾



37) 이 명사들은 굴절단위로서 definite, generic, aggregate, plural, bounded 등의 의미 특성을 갖는다.

제3장 국어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구조

3.1. 국어 사동사의 의미 구조

3.1.0. 우리는 지금까지 Chafe(1970)의 의미구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였다. 아파에서 제시된 동사의 의미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국어 사동사의 의미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국어 사동사의 의미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는 동사의 각 선택단위와 파생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접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어의 사동사는 상태동사에서, 과정동사에서, 동작동사에서, 동작과정동사에서 파생될 수 있다.

3.1.1.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국어의 모든 상태동사가 사동파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들에 나타나는 상태동사들은 사동파생을 좀처럼 입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31) a. 순이는 키가 크다.
b. 철수는 배가 고프다.
c. 철수는 코가 가렵다.

상태동사에 소위 사동의 접미사가 첨가되어 그 상태동사가 사동파생을 입은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 (32) a. 철수는 양복을 맞추었다.
b. 철수가 나에게 말을 낮추었다.
c. 철수가 나에게 신분을 밝혔다.

그러나 위의 각 문장에 대응되는 상태동사문이 a'. 양복이 맞다. b'. 말이 낮다. c'. 신분이 밝다. 등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즉 (32)는 사동사문이 아니며 그 동사들도 사동파생을 입은 동사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사동사의 의미가 화석화(化石化)되어 기본 단어의 의미보다 좁은 영역의 의미를 지시하거나, 문맥에 의해 확장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 '마감일을 이틀 늦추었다' '허리를 굽혔다' '등불을 밝혔다' '허리띠를 늦추었다'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는 2장에서 상태동사가 기동화(inchoative)파생을 입어 과정동사가 되고 과정동사는 사동화(causative)파생을 입어 동작과정동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국어의 상태동사 중에는 기동화파생단위를 표면구조에 나타내 보이지 않고, 사동화파생을 입어 동작과정동사로 사용 되는 경우가 있다.

- (33) a. 길이 넓다.
b. 길이 넓어지다.

- c. 인부들이 길을 넓힌다.
- d. 인부들이 길이 넓어지게 한다.

(33)에서 a는 상태동사 b는 과정동사 c는 동작과정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다. c의 ‘넓히다’는 d의 ‘넓어지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넓히다’는 상태동사 ‘넓다’에서 직접 파생된 것이 아니고 b의 ‘넓어지다’라는 과정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동사 즉 상태동사가 기동화파생을 입고 이것이 다시 사동화파생을 입어 동작과정동사가 된 사동사들의 특질은 ‘시킴’ ‘명령’ ‘허용’ 따위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대상(patient)이 갖는 어떤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동사들은 동사 그 자체의 의미와 대상의 의미에 따라 심한 제약을 받는다. 우리는 이러한 제약의 하나로서 상대성(relative)의 특질을 갖춘 상태동사들이 주로 사동화파생을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34) a. 순이가 김치를 짜게 하였다.
- b. 대장장이가 칼을 날카롭게 하였다.
- c. 어머니가 방을 따뜻하게 하였다.

(34)의 각 문장에는 사동의 접미변(또는 어간형성소)가 사용될 수 없다. 접미사(接尾辭)로 된 사동사와 ‘하다’로 된 사동사는 사동성의 의미 영역 즉 ‘대상의 상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동작’인 한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하다’ 동사 그 자체의 광범위한 의미로 말미암아 ‘하다’류의 사동사는 보다 다양한 문맥의 의미를 갖는다.³⁸⁾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들 중에는 그 동작주로서 무정물(無情物)의 각사(各詞)를 갖는 경우가 있다.

- (35) a. 바람이 우리를 시원하게 했다.
- b. 그 사람과의 이별이 나를 슬프게 했다.
- c. 이 난로가 방을 따뜻하게 한다.
- d. 돈이 사람을 어리석게 한다.

(35) 각 문장에 사용된 ‘바람’ ‘이별’ ‘난로’ ‘돈’ 등이 모두 잠재적인 동작주로서의 의미기능을 갖는다. 이들 각사(各詞)에는 의도성을 없으나 ‘영향주’ ‘상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a의 ‘바람’은 ‘역격’으로 b의 ‘이별’은 원인격으로 c의 ‘난로’는 도구격으로 d의 ‘돈’은 방격(方格)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경험주를 갖는 심리적 상태동사들도 사동파생을 입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독특하게도 상태동사문의 대상(patient)이 동작과정동사문의 동작주로서 기능한다.

- (36) a. 철수는 그 소설이 슬펐다.
- b. 철수는 그 사실이 괴로웠다.
- c. 철수는 그 호랑이가 무서웠다.

38) 서정수(1975: 124)는 ‘하다’에 ‘만들다’ ‘이루어지도록 어떤 작용을 가하다’ ‘어떤 상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다’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36) 문장에 대응하는 사동사문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 (37) a. 그 소설이 철수를 슬프게 했다.
- b. 그 사실이 철수를 괴롭게 했다.
- c. 그 호랑이가 철수를 무섭게 했다.

(36) a에서는 소설이 ‘슬프다’에 대한 대상(patient)의 기능을 갖지만 (37) a에서는 잠재적 동작주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이것은 아마 ‘슬프다’라는 동사 자체의 의미가 어떤 자극체 또는 영향주의 의미를 원인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b의 그 사실을 ‘영수가 자주 찾아오는 것’으로 대치하면 b문장은 ‘영수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철수를 괴롭힌다’ ‘영수가 (자신이) 자주 찾아옴으로써 철수를 괴롭힌다’와 같이 되어 상위문(上位文)에 새로운 동작주로 가정할 수도 있다. c문장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호랑이가 철수에게 호랑이 자기를 무서워하게 한다’로 해석될 경우고 다른 하나는 ‘호랑이가 철수에게 무서운 기분이 들게 한다’로 해석될 경우다. (37)과 같은 사동사문의 특징은 그 동사가 외부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과 그 동작주가 심리적 상태의 자극체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심리적 상태동사들은 (37)과 같은 사동사문을 만들지 못한다.

- (38) a. 나는 고향이 그리롭다.
- b. 나는 어머니가 그리롭다.
- c. 나는 철수가 밋다.
- (39) * a. 고향이 나를 그리롭게 한다.
- * b. 어머니가 나를 그리롭게 한다.
- * c. 철수가 나를 밋게 한다.
- d. 그녀의 편지가 나에게 고향을 그리롭게 한다.

(38)문장이 (37)문장과 같은 방식의 사동파생을 입으면 (39)문장의 a, b, c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비문법적이다. 그 이유는 상태동사 ‘그리롭다’ ‘밋다’ 등이 외부의 자극으로 말미암은 심리적 상태라기보다는 자생적인 심리적 상태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과 ‘고향’ ‘어머니’가 자극체로서의 의미역할을 갖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장 d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자극체로서의 잠재적 동작주 ‘그녀의 편지’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3.1.2. 과정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과정동사가 동작과정동사로 파생할 경우에는 파생단위 사동화(causative)가 작용한다. Chafe(1970)에 의하면 동사의 의미 구조에서 사동화가 작용하는 것은 과정동사뿐인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국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태동사 및 과정동사 외에 동작동사 및 동작과정동사의 사동화도 가능하나 가장 순수한 사동화는 과정동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문장에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본래의 과정동사들이다.

- (40) a. 얼음이 녹는다.
- b. 물이 줄었다.
- c. 그 노인이 죽었다.

이들 과정동사문은 사동화과생을 입으면 다음과 같은 동작과정동사문이 된다.

- (41) a. 철수가 얼음을 녹였다.³⁹⁾
- b. 사람들이 (호수의) 물을 줄였다.
- c. 강도가 그 노인을 죽였다.

(41)의 각 문장에는 (40)문장에는 없던 동작주가 나타나 있다. 이들은 모두 유정물(animate, potent) 각사(各詞)로서 어떤 대상(patient)의 과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도 ‘시킴’이나 ‘허용’의 의미는 없으며 단지 동작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40)의 사동사들은 무정물의 동작주를 가질 수 있다.

- (42) a. 열이 얼음을 녹였다.
- b. 태양이 (호수의) 물을 줄였다.
- c. 자동차가 그 노인을 죽였다.

(42)에서 ‘열’ ‘태양’ ‘자동차’는 모두 잠재적 동작주(potent)의 기능을 갖는데 ‘열’ 및 ‘태양’은 방격으로 ‘자동차’는 도구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의 각 사동사들 역시 ‘시킴’ ‘허용’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음 문장은 경험의 과정동사들이 사동화 과생을 입어서 된 동작과정동사문이다.

- (43) a. 철수가 순이에게 뺨을 보였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악을 들렸다.
- c.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사실을 기억시켰다.

(43)에서 ‘순이’ ‘아이’ ‘학생’은 모두 경험주로서 기능하며 ‘철수’ ‘어머니’ ‘선생님’은 동작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그 경험주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해 주는 역할을 드러낸다. (43)을 (44)와 같은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동작주의 이러한 기능은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 (44) a. 철수가 순이에게 뺨을 보여 주었다.
- b. 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악을 들려주었다.
- c. 선생님이 학생에게 그 사실을 기억시켜 주었다.

39) 이정민(1974: 140)은 ‘녹게 하다’ ‘죽이다’를 구별하였는데 ‘아이가 눈을 녹게 하였으나 눈이 안 녹았다’는 문법적이나 ‘아이가 눈을 녹였으나 눈이 안 녹았다’는 비문법적이라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상식으로서의 뒷문장도 문법적이다. 즉 사동화는 결과화와는 과정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험주의 과정동사들이 사동화 과정을 입으면 그 동사들은 본래의 경험주와 과정성의 의미 외에 동작성과 수혜성의 의미특성을 갖는 것을 생각된다.

- (45) a. 문이 (잘) 열린다.
- b. 접시가 깨어졌다.

(45)의 각 문장은 동작과정동사가 비동작화과생을 입어 과정동사로 파생된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다. 이들은 다시 사동화과생을 입어 동작과정동사문으로 될 수 있다.

- (46) a. 목수가 문을 (잘) 열리게 했다.
- b. 그 폭발이 접시를 깨어지게 했다.

(46)의 사동사는 과정성과 그 과정성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성을 의미특성으로 하며 ‘시킴’이나 허용의 의미는 없다.

- (47) a. 강도가 그 노인을 고의로 죽였다.
- b. 강도가 그 노인을 실수로 죽였다.
- c. 강도가 그 노인을 고의로 죽게 했다.
- d. 강도가 그 노인을 실수로 죽게 했다.

a와 c문장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a와 같은 사동은 어휘적 사동이라 하여 직접의 의미를 나타내고 c와 같은 사동은 우회적 사동이라 하여 간접의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Shibatani, 1973: 283) 이 둘에는 아무런 의미의 차이를 찾을 수 없고 단지 문체 또는 사용상의 차이라는 주장도 있다.(양인석, 1974) 그러나 이들이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동사 그 자체의 의미특성이다. 즉 사동의 직접·간접은 사동형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의미구조에 바탕을 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과정동사에는 동작주가 나타날 수 없으므로 과정동사의 사동사문에서 새로 도입된 동작주가 사동사에 대한 직접적인 동작주가 되는 동시에 그 동작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 그리고 과정동사문의 대상(patient)은 그대로 사동사문의 대상(patient)이 된다. a와 b는 의도(intentional)와 비의도(non-intentional)로 구별될 수 있다.(Dowthy, 1972) 그러나 사동사의 의도와 비의도가 그 의미 특성에서 말미암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화맥(話脈)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죽이다’는 영어의 kill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동사다 kill은 생성 의미론자들에 의해 소위 ‘어휘 해체 분석’되어 그 기저 의미를 밝히고 있는 동사다. Mc-cawley(1968)는 kill의 기저의미를 Cause, Become, Not, Alive로 해체 분석하였다. 그리고 kill은 cause effect만을 지니지만 다른 사동사들은 cause effect와 cause result의 애매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물론 이들의 동의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Fodor, 1970) 국어의 사동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47)의 c와 d는 직접과 간접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성을 지닌다. 이것은 ‘하’의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나 사동의 의미에서는 ‘죽이다’와 뚜렷한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

3.1.3 동작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동작동사에 사동파생단위가 작용하여 사동사로 되는 경우, 이 사동사는 동작과정동사가 아니라 여전히 동작동사로 남는다. 이것은 대상(patient)이 그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동화는 Chafe(1970)의 사동화(causative)와는 구별된다.

- (48) a. 철수가 (집으로) 간다.
- b. 철수가 (집에서) 온다.
- c. 새가 (하늘을) 난다.

(48)의 문장들은 모두 동작주, 위치명사, 동작동사로 되어 있다. 이들 문장에 대응되는 사동사문은 (49)와 같다. 이들은 소위 사동접미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⁴⁰⁾

- (49) a. 아버지가 철수{를 에게 가}⁴¹⁾ 가게 하였다.
- b. 아버지가 철수{를 에게 가} 오게 하였다.
- c. 조류학자가 새{를 에게 가} 날게 하였다.

(49)의 각 문장에는 두 개의 동작주가 나타나 있다. ‘아버지’ ‘조류학자’ 등은 실제로 동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작을 시키는 사람이며 ‘철수’와 ‘새’는 실제로는 동작을 하는 명사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동작주가 어떤 대상(patient)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동작의 동작주가 아니다. 어떤 동작을 하는 동작주로 하여금 그 동작을 하게 시키거나 허용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동사를 ‘시킴’ 또는 ‘허용’의 사동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동사에는 수혜성의 의미가 없다. 즉 (49)의 ‘철수’와 ‘새’는 수혜성의 역할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우리는 ‘아버지’를 상위문의 동작주로 ‘철수’를 내포문의 동작주로 구별할 수 있다.

- (50) a. 순이가 춤을 춘다.
- b. 순이가 잠을 잔다.
- c. 순이가 신을 신는다.

위의 문장은 동작주-보충명사-동작동사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들 문장에 대응하는 사동사문은 다음과 같다.

- (51) a. 어머니가 순이{가 에게 를} 춤을 추게 한다.
- b. 어머니가 순이{가 에게 를} 잠을 자게 한다.(재운다)
- c. 어머니가 순이{가 에게 를} 신을 신게 한다.(신긴다)

40) ‘새를 날려 보내다’ ‘연을 날리다’ 등의 날리다와 ‘새를 날게 하다’와 ‘날게 하다’는 다른 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41) {를 에게 가}가 표면구조에서 공유된다는 사실은 의미구조에서는 설명될 수 없고 변형과정(post semantic structure)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주어 끌어올리기 규칙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이정민, 1974)

문장에서 보충명사를 갖는 사동사도 역시 (49)의 사동사와 같은 의미특성을 갖는다. (51)에서 실제로 직접적인 동작을 하는 명사는 ‘순이’며 그 ‘순이’로 하여금 춤을 추고 잠을 자고 신을 신고 하는 동작을 하게 시키거나 허용하는 명사는 ‘어머니’다. (51)의 b에서 ‘재운다’와 ‘자게 한다’의 차이가 ‘강제’와 ‘비강제’ 또는 ‘직접’과 ‘간접’의 의미 차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사동사 그 자체의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51) b의 ‘신게 한다’와 ‘신긴다’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신긴다’에는 허용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는 ‘시킴’과 ‘허용’의 의미가 상호 배타적인가 아니면 어느 한 쪽에 포섭될 수 있는가 또는 상위의 의미망 속에 흡수되는가 하는 세 가지 가능성의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의 가능성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기로 한다. 허용은 완곡한 시킴의 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왜 ‘신긴다’와 같은 사동사보다 ‘신게 한다’와 같은 사동사의 의미가 확장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의 단서는 ‘하’뿐만 아니라 ‘게’에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부사형 어미로 또는 보문자(補文子)로 인식되어온 ‘게’의 기능 영역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으로서 ‘게’의 대상으로 선택되어진 어떤 일, 사건, 사물 등은 선택되어진 대상의 속성에 적절한 어떤 변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52) a. 철수가 웃는다.
- b. 철수가 공부한다.
- c. 기차가 움직인다.

(52)의 문장에 대응하는 사동사문은 다음과 같다.

- (53) a. 아버지가 철수를 웃긴다.(웃게 한다)
- b. 아버지가 철수를 공부시킨다.
- c. 기관수가 기차를 움직인다.

(53)의 a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온 사동사와는 그 의미특성을 달리한다. 즉 시킴이나 허용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행동이 자극체가 되어 웃는 동작의 원인으로 기능한다. 이것은 ‘웃다’라는 동사의 특성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웃는 동작은 시킴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오히려 심리적인 상태동사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시킴’의 의미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b문장과 비교해 보면 a문장의 이러한 특성은 보다 잘 드러난다. c문장의 ‘움직인다’는 표면구조에서 아무런 파생단위의 첨가 없이 과정동사, 동작동사, 동작과정동사로 넘나든다. c문장은 단순한 동작과정동사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사동성의 동작과정동사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 일반적인 동작동사의 사동사문이 역시 동작동사인 것과 구별된다.

동작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의 또 하나의 특성은 수혜성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점이다.

- (54) a. 아버지가 철수를 가게 해 준다.
- b. 아버지가 순이를 춤을 추게 해 준다.
- c. 아버지가 철수를 웃게 해 준다.

문장 (54)에서 철수는 동작주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수혜주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포문 동작주의 표면격표지와 사동사의 의미특성과의 관계를 밝혀 보기로 한다. 우리는 (49)와 (51)의 각 문장에서 ‘가’ ‘를’ ‘에게’가 동일한 명사 다음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49)의 b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 (55) a. 아버지는 철수가 오게 하였다.
- b. 아버지는 철수를 오게 하였다.
- c. 아버지는 철수에게 오게 하였다.

손호민(1973)이 위와 비슷한 문장을 분석하였다. 그는 a에는 causative의 의미만 나타나고 b에는 causative와 permissive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여 b와 c는 a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a에서는 ‘철수’가 다음에 음운론적 연결(phonological juncture)이 올 수 없으며 ‘철수’와 ‘아버지’의 어순을 바꿀 수 없고 철수가 다음에 martix adverb를 삽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a에서의 ‘철수’는 ‘오’의 동작주며 b의 ‘철수’는 ‘오게 하’의 대상(patient)으로 기능하며 c의 ‘철수’는 ‘오게 하’의 경험주로서 ‘오게 하’는 행동은 ‘철수’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 세 문장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 a. [아버지는 [[철수가 오게]] comp 하였다] vp]s
- b. [아버지는 [철수를] obj [[(철수가)오게] comp 하였다] vp]s
- c. [아버지는 [철수에게] exp [[(철수가)오게] comp 하였다] vp]s

그러나 위와 같은 구별이 하나의 가설로서의 의미는 지니겠지만 그 적용력의 범위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즉 위의 문장은 진정한 사동사문이 아니라는 사실과 사동성의 허용의 의미가 a와 b에서 그렇게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 대상과 경험주가 서로 넘나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a의 ‘철수가’ 다음에 휴지를 두고 발음을 강하게 하면 ‘철수가’는 선택 지정의 의미를 지닌 대상(object)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이다. 그리고 ‘철수’는 그 문장의 의미구조에서는 경험주 또는 대상(patient)이 아니라 모두 동작주(agent)로서 기능한다. 그러므로 격표지는 사동사의 의미특성과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고 화용상(話用上)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3.1.4. 동작과정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동사는 과정동사에서 파생된 동작과정동사다. 그런데 국어의 사동사는 본래의 동작과정동사에서도 파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동사는 과정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와는 다른 어떤 의미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56) a. 철수가 밥을 먹었다.
- b. 철수가 옷을 입었다.
- c. 철수가 옷을 벗었다.

(56)의 각 문장들은 동작과정동사문이다. 즉 ‘철수’는 동작주로서 ‘밥’ ‘옷’은 대상(patient)의 의미역할을 갖는다. 이들은 (57)과 같은 사동과생을 입을 수 있다.

- (57) a. 어머니가 철수에게 밥을 먹였다.
- b. 어머니가 철수에게 옷을 입혔다.
- c. 어머니가 철수에게서 옷을 벗겼다.

(57)에서는 새로운 동작주로서 ‘어머니’가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먹는 동작의 주인공은 물론 철수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자의적인 동작을 하는 것은 ‘어머니’로 생각된다. ‘철수’는 ‘태어난 지 세 달이 지난 아이’로 대치하면 이러한 의미는 보다 명백해진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종래에 이런 부류의 사동에 직접 사동이란 특성을 부여하였다.⁴²⁾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사동의 접미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수’를 수혜주(beneficiary)로 생각할 수 있다. 즉 (56)에 문장에서는 동작주의 기능을 하던 ‘철수’가 (57)의 문장에서는 수혜주의 기능을 함으로써 그 동작주의 기능을 ‘어머니’에게 전가시키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동사에는 ‘시킴’ 또는 허용 또는 대상의 어떤 조건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작의 의미는 없고 수혜성의 의미와 동작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동작의 의미만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먹다’ ‘입다’ 등의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먹는 동작 또는 입는 동작으로 말미암아 그 동작주는 어떤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수혜성은 다음과 같이 ‘주다’를 첨가하면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 (58) a. 어머니가 철수에게 밥을 먹여 주었다.
- b. 어머니가 철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 c. 어머니가 철수에게서 옷을 벗겨 주었다.

(57)의 b는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paraphrase)

- (59) a. 어머니가 철수가 옷을 입게 했다.
- b. 어머니가 철수를 옷을 입게 했다.
- c. 어머니가 철수에게 옷을 입게 했다.

(59)의 문장은 (55)의 문장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c의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입다’라는 동사의 수혜성과 격표지 ‘에게’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59)의 각 문장들은 ‘시킴’과 허용의 의미특성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는 그 까닭을 ‘게’와 ‘하’의 의미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한다. 즉 ‘게 하다’는 사동과생의 의미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동사의 의미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⁴³⁾

42) Shibatini(1973)

43) 이와 비슷한 견해는 서정수(1975)에서도 보인다. 그는 ‘하’를 허용, 강제, 편의 제공 등 가능한 모든 사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게’ 앞의 요소들이 표시하는 동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표현을 대리하는 ‘대동사’로 보았다.

동작과정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 가운데는 수혜성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들도 있다.

- (60) a. 철수가 피리를 분다.
- b. 철수가 책을 읽는다.
- c. 철수가 글씨를 쓴다.

(60)의 각 문장에는 동작과정동사가 사용되었다. 이들 문장에 대응되는 사동사문은 다음과 같다.

- (61) a. 아버지가 철수에게 피리를 불게 한다.
- b. 아버지가 철수에게 책을 읽힌다.
- c. 아버지가 철수에게 글씨를 쓰게 한다.

(61)의 각 문장에 사용된 아버지는 직접 동작에 참여하지 않고 어떤 동작을 하게 시키거나 허용하는 역할을 갖는다. 이것은 (57)의 ‘어머니’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61)의 ‘철수’는 아버지의 어떤 동작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받은 수혜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시킴으로 말미암아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동작주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동작주를 구별할 수 있다. 즉 앞의 동작주 ‘아버지’는 교사자(教唆者) 또는 지시자(initiative)로서의 동작주며 철수는 그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상(patient)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주(agentive)로서의 동작주다.⁴⁴⁾

이러한 의미특성은 동사 ‘불다’ ‘읽다’ ‘쓰다’ 등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 (62) a. 철수가 손을 씻는다.
- b. 철수가 실을 감는다.
- c. 순이가 빨래를 씻는다.
- d. 순이가 머리를 감는다.

(62)에서 a의 ‘씻는다’와 b의 ‘감는다’는 수혜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대상(patient)은 ‘자기의 손’ ‘자기의 머리’다. 이들에 대응되는 사동사문 역시 수혜주와 수혜성의 사동사를 갖는다.

- (63) a. 어머니가 철수에게 손을 씻긴다.
- b. 어머니가 순이에게 머리를 감긴다.

그러나 (62)에서 b의 ‘감는다’와 c의 ‘씻는다’는 수혜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그 대상(patient) ‘실’과 ‘빨래’에서 비롯된다. b와 c에 대응되는 사동사문은 수혜주

44) Cruse(1973)는 동작주를 네 가지로 하위분류하였는데 그 중 initiative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었다.
○ The warder marched the prisoners across the yard. ○ John galloped the horse around the field.
그리고 agentive의 예로서 ○ John flew the hawk. ○ John moved to avoid the falling stones. 등을 들었다.

45) 이기동(1974)은 우리와 다른 관점에서 사동사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분류는 수혜성을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의 분류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를 갖지 않으며 그 사동사도 수혜성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지시자로서의 동작주와 행동주로서의 동작주를 갖는다.

- (64) a. 어머니가 철수에게 실을 감겼다.
b. 어머니가 순이에게 빨래를 씻겼다.

(64)의 어머니는 지시자, ‘철수’와 ‘순이’는 행동주로서의 의미역할을 갖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온 사동사는 그 표면구조에서 사동의 접미사 또는 ‘게 하’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시키’를 가지는 사동사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시키’를 가지는 사동사는 주로 동사성 명사들이다. 이들의 사동화는 동사의 각 선택단위별로 그 의미 특성을 달리한다.⁴⁶⁾

- (65) a. 철수는 행복하다.
* a'. 철수를 행복시킨다.
b. 한국의 국방력은 강하다.
* b'. 한국의 국방력을 강시키다.

(65)의 a와 b에는 한자어근으로 된 상태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사동화는 a'와 b'처럼 되지 않는다. 이들의 사동화는 다음 문장으로 나타난다.

- (66) a. 어머니가 철수를 행복하게 하였다.
b.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국방력을 강하게 했다.

그러나 과정성의 한자어근으로 된 과정동사의 사동화는 ‘시키’를 갖는다. 다음 (67)은 능동의 과정동사문이고 (68)은 이에 대응하는 사동사문이다.

- (67) a. 그 배가 침몰하였다.
b. 한국의 공업이 발전하였다.
c. 그 마을의 모습이 변화하였다.
(68) a. 선장이 (또는 폭풍이) 그 배를 침몰시켰다.
b. 노동자들이 한국의 공업을 발전시켰다.
c. 새마을 운동이 그 마을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68)의 각 사동사에는 ‘시킴’ 또는 ‘명령’ ‘구속’ ‘수혜’ 등의 의미가 없다. 이들은 단지 그 문장의 대상(patient)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동작’의 의미만을 가진다. (67)의 각 문장은 다음과 같은 과정동사문으로 사용된다. (67)과 (69)의 의미 차이는 과정성의 의미에서는 동일하나 (67)은 과정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69)는 과정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별된다.

46) 국어의 동사성 명사에 대해서는 Martin(1954: 16)이 언급하였고 서정수(1975)가 자세히 고찰하였다. Martin은 ‘verbal noun’ 서정수는 ‘동사적 명사’라 하였다. 다음에서 든 예들은 서정수(1975)를 참고하였다.

- (69) a. 그 배가 침몰되었다.
b. 한국의 공업이 발전되었다.
c. 그 마을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동작성의 한자어근으로 된 동작동사의 사동화도 '시키'를 갖는다.

- (70) a. 철수가 (열심히) 운동하였다.
b. 철수가 (열심히) 공부하였다.
c. 철수가 (열심히) 일하였다.

(70)에 대응하는 사동사문은 (71)과 같이 나타난다.

- (71) a. 아버지가 철수를 운동시켰다.
b. 선생님이 철수를 공부시켰다.
c. 공장 주인이 철수를 일시켰다.

(71)의 각 문장에 사용된 사동사는 '시킴' '명령' '구속'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68)의 사동사들이 '일으킴(cause)'의 의미만을 갖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다음 문장들은 동작과정동사문으로 생각된다.

- (72) a. 국회가 예산 규모를 축소하였다.
b. 국회가 헌법을 개정하였다.
c. 철수가 순이를 설득하였다.
d. 농민들이 쌀을 증산하였다.
e. 인부들이 건물을 파괴하였다.

(72)의 문장은 (73)과 같은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73) a. 국회가 예산 규모를 축소시켰다.
b. 국회가 헌법을 개정시켰다.
c. 철수가 순이를 설득시켰다.
d. 농민들이 쌀을 증산시켰다.
e. 인부들이 건물을 파괴시켰다.

(72)와 (73)의 관계는 (67)과 (68) 또는 (70)과 (71)의 관계와는 판이하다. 즉 (73)은 (72)의 사동사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72) 그 자체를 사동사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72)는 과정동사문이 사동화(causative)파생을 입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72)에 대응되는 과정동사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74) a. 예산 규모가 축소.
b. 헌법이 개정.

- c. 순이가 설득.
- d. 쌀이 증산.
- e. 건물이 파괴.

(74)의 각 동사들은 영어의 move나 국어의 ‘움직이다’처럼 표면구조의 파생단위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 능격(ergative)⁴⁷⁾ 동사들로 생각되는데 이들이 의미구조(즉 post semantic structure와 대립되는)에서 사동화 파생을 입으면 (72)와 같은 사동성의 동작과정동사문으로 파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73)의 문장은 (72)에서가 아니라 (74)에서 사동화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72)와 (73)의 차이는 그 사동성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느냐 드러내느냐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72) 또는 (73)과 같은 사동사의 의미는 (71)의 사동사와는 달리 (68)의 사동사들이 갖는 의미와 일치한다. 즉 ‘시킴’ ‘명령’ ‘구속’ 등의 의미가 아니라 ‘대상(patient)의 상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킴’의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다.

상태성의 한자어근으로 된 상태동사들도 기동화(inchoative) 파생을 입어 과정동사로 되면, 이 과정동사는 다시 사동화(causative) 파생을 입어 사동성의 동작과정동사로 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동화 파생 단위는 ‘화(化)’가, 사동화 파생 단위는 ‘시키’가 참여한다. 다음의 (75)문장들은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과정동사를 가진 것이고 (76)의 문장들은 (75)에서 파생된 동작과정동사를 가지는 것이다.⁴⁸⁾

- (75) a. 그 사실이 미화(되다)
- b. 공장 시설이 현대화(되다)
- c. 국방력이 강화(되다)
- (76) a. 정부가 그 사실을 미화시켰다.
- b. 정부가 공장시설을 현대화시켰다.
- c.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76)의 문장은 (72)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정부가 공장 시설을 현대화하였다.) (76)의 문장에 사용된 사동사들의 의미는 (73)의 사동사들의 의미와 일치한다. 즉 ‘대상(patient)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킴’(cause)의 의미특성을 갖는다.

3.2. 국어 사동사의 의미구조

3.2.1. 태(態)와 피동

피동은 태의 일종이다. 태(voice, diathesis)는 일반적으로 동사에 관여하는 동사의 특질 즉 방향성에 관한 언어적 형태다. 태의 종류로는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대상-

47) Lyons(1968: 354~359). 그리고 본래의 동작과정동사인 기르다. 접다 등은 그 의미 속에 사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르다’는 자르게 하다. ‘접다’는 접어지게 하다.

48) (75)에 대응되는 상태동사문은 실제 발화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거나 약간씩 변형되어 사용된다.

- 즉 ○ 그 사실이 미(적이다)
- 공장시설이 현대(적이다)
- 국방력이 강(하다)

행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능동태와 대상-행위자-행위의 관계를 나타내는 피동태와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관계를 나타내는 사동태와 행위자가 행위자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재귀태와 둘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에게 어떤 행위를 가하는 상호태와 행위자가 그 자신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중동태 등이 있다.⁴⁹⁾

태는 굴절범주에 의하여 표면구조에 나타나기도 하고, 통사론적 구성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각 언어에 따라 태의 범주를 달리하기도 한다. 국어의 경우에는 능동·피동·사동의 세 범주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능동과 피동은 행위자 중심의 표현인가 대상 중심의 표현인가로 구별된다. 표면구조에서 행위자가 주어로 나타나는 것은 대상(patient)이 주어로 나타나는 것보다 보편적인 언어현상이다. 대상중심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제약을 받는다. 즉 능동문의 주어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거나, 용이하게 서술할 수 없는 경우, 내용에 의하여 능동문의 주어가 분명한 경우, 어떤 특별한 이유로서 주어를 나타낼 수 없을 경우, 행위자보다는 대상(patient)에 관심이 많을 경우, 피동표현 형식이 말을 계속하는 데 편리한 경우 등에 피동사문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⁰⁾

피동사문이 가지는 이러한 제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물음이 바로 피동사의 의미구조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피동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표면구조상에서의 형태 또는 통사특징 규명에 힘을 쏟아 온 것으로 생각된다. 소위 제1 피동, 제2 피동, 제3 피동 등의 접근방식이 바로 그것인데⁵¹⁾ 이것은 현상의 단순한 지적이지 현상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또 하나의 접근방식으로서 제1 피동, 제2 피동, 제3 피동 사이의 의미특성을 구별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는데⁵²⁾ 시도 그 자체가 이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상의 의미차이에 집착한 나머지 형태상의 차이를 가지고 이전에 이미 동사가 가지고 있었던 심층적인 의미특성을 간과해 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사의 의미구조 즉 의미단위의 파생과 굴절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고자 한다.

피동사문은 본질적으로 동작주(agent)와 대상(patient)과 동작과정동사를 전제로 한다. 행위자 중심 또는 대상 중심이라고 했을 경우 행위자와 대상이 공유될 수 있는 동사는 동작과정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어의 경우 소위 피동화라고 일컬어져 왔던 동사의 부류들은 동작과정동사의 영역을 벗어난다. 여기서 우리는 동작과정동사의 피동화와 비동작과정동사의 피동화로 구분할 필요를 얻는다. 비동작과정동사의 피동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피동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작과정동사의 피동화는 피동굴절을 입는 경우와, 비동작화(deactivative) 파생을 입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피동굴절은 새로운 정보단위(new information)와 주어진 정보단위(old information)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 피동굴절은 앞에서 살펴본 피동화의 제약의미를 풀이해 줄 것이다.

3.2.2. 언어 정보 단위의 새로움과 새롭지 않음(new information, old information)

언어는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보를 청자의 마음속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49) Lyons(1969: 371-388) 및 Hockett(1958: 236-237)

50) Jespersen(1968: 166)

51) 최현배(1929/1971) 및 대부분의 전통문법학설

52) 이정민(1973) 및 성광수(1976 a, b)

정보는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된 몇 개의 의미단위를 가진 문장으로 되어 나타난다. 화자는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어떤 것은 새로운 것(new information, 다음부터는 new라고 약칭함) 즉 그가 청자의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어떤 것은 새롭지 않은 것(old information, 다음부터는 old라 약칭함)으로 인식한다. old는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하는 공통된 환경에서 공유되기도 하고 이미 발화된 문장 즉 문맥에서 공유되기도 한다.⁵³⁾ 일반적으로 new인 의미단위에는 표면구조에서 문장강세(pitch)가 놓여진다.

new와 old의 개념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topic과 comment, theme와 rheme, subject와 predicate 등이 있다.⁵⁴⁾ topic과 comment는 프라그마학에 속하는 몇몇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끌여온 것이다. 이들은 문장을 이루는 각 요소들이 지닌 communicative dynamism의 크기에 따라 topic과 comment로 나눈다. 인간의 사고과정에는 사고를 이루는 각 요소가 그들이 전달하는 communicative dynamism의 크기에 의해 선조적(線條的)으로 배열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문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가정에서 문장을 topic과 comment로 나눈 것이다. 문장의 각 요소들은 C.D가 작은 것부터 큰 것의 순서로 배열되어 작은 쪽이 topic 큰 쪽이 comment가 된다. topic과 comment는 어순에 의해 표시되기도 하고 특별한 형태를 첨가함으로써 표시되기도 한다. topic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한정된 지식이어야 하며 비한정적인 체언이 topic이 될 때 그 체언은 유개념(generic)을 나타낸다. topic은 C.D가 약하므로 대명사로 바뀌거나 생략된다. topic에는 문장 강세가 없고 강세는 언제나 comment에 놓인다. topic은 어순에 의해서도 표시되는데 topic은 대개의 경우 문두(文頭)에 위치한다. topic이 없는 문장도 있을 수 있다. topic은 문장의 특정한 요소와 관계를 갖지 않고 문장 전체와 관계를 가지며, topic과 comment 사이에는 가벼운 휴지(pause)가 놓여진다.⁵⁵⁾ 이러한 topic의 기본 개념은 우리의 관심사인 new와 old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⁵⁶⁾ 다음에서 Chafe(1970)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new와 old를 국어에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77) 그 상자가 비어 있다.

위의 문장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상자로 다가갔거나 이미 알고 있는 상자일 경우 가능한 발화다. 즉 상자는 old, 비어 있다는 new다. 강세는 '비어 있다'에 놓여진다. 상자는 유개념(generic)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definite) 명사다. 표면구조에서 주어가 old가 되는 경우는 그 명사가 유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한정된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동사는 항상 new가 된다.

(78) (그) 사과가 상자 안에 있다.⁵⁷⁾

53) Chafe(1970: 210)

54) Halliday(1967-68) 및 Kirkwood(1969), Chafe(1970, 1973, 1974), Dillon(1977) 등이 참고된다. 채완(1976)은 Dahl(1969, 1970, 1973)의 이론을 소개한 바 있다.

55) 채완(1976: 97-101)

56) Chafe(1970)는 new가 topic보다 포괄적이라고 했다.

57) 이 문장에 사용된 '가'는 '선택·지정'의 양태적인 뜻을 갖지 않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

위의 문장에서는 ‘사과’가 old다. 위치명사 ‘상자’는 (1)에서는 old였으나 여기서는 new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규칙을 세울 수 있다.

(규칙-1)	동사	→	동사	(규칙-2)	(位置)	(位置)
	어근		<u>어근</u>		명사	→ 명사
			new		어근	<u>어근</u>
						new

다음 문장은 대상(patient)으로 사용된 명사가 그 문장에 동작주 명사나 수혜주 명사를 가지면 new가 되는 경우를 보여 준다.

- (79) a. 철수가 상자를 비웠다.
 b. 순이가 선물을 받았다. (밑줄은 new를 표시)

이것을 다음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규칙-3)	(대상)	(대상)
	명사	→ 명사 / (수혜주)
	어근	<u>어근</u> / (동작주)
		new

다음 문장은 수혜주 명사가 new로 굴절된 경우의 문장이다.

- (80) 철수가 순이에게 그림을 주었다.

그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규칙-4)	(수혜주)	(수혜주)
	명사	→ 명사
	어근	어근 / (동작주)

이상의 규칙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한다. 동사와 위치명사는 항상 new가 되며 대상명사(patient)가 그 문장에서 동작주 명사나 수혜주 명사를 가지면 new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ld가 된다. 그리고 수혜주 명사는 그 문장에 동작주를 가지면 new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ld가 된다. 보통의 경우에 동작주 명사는 new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동작과정동사의 어떤 문장에서는 동작주가 new가 되고 대상이 old가 된다. Chafe(1970)는 영어에서의 이런 문장을 피동굴절로 보았다. (passive as inflectional unit) 이것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규칙-5)	동사	→ 피동화
		(과정성)
		(동작성)

- (81) a. 순경이 도둑을 잡았다.
 b. 도둑이 순경에게 잡혔다.

문장 (81)의 a에서는 ‘순경’이 old지만 그 피동문 b에서는 ‘순경’이 new고 ‘도둑’이 old다. 이러한 피동굴절의 과정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규칙-6) (동작주) (동작주)
 명사 → 명사 / 동사
 어근 어근 / (피동화)
 new

그러나 이상의 규칙들이 모든 문장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누가 했느냐?’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어떤 문장이 주어질 경우에는 위의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장을 보통의 기술문(記述文)과 대립시켜 우리는 대조문(對照文)이라 할 수 있다.⁵⁸⁾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표현할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new와 구별하여 focus라 부르기로 한다.⁵⁹⁾

- (82) a. 그 상자가 비었다.
 b. 철수가 웃었다.
 c. 철수가 책을 샀다.
 d. 철수가 그 책을 영수에게 주었다.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화자는 그 정보중의 어느 하나를 특별히 선택하여 그것을 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즉 a는 빈 것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히 ‘그 상자’를 선택하여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b는 여러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철수’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철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c는 철수가 책을 팔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에서 ‘샀다’라는 행동을 선택하여 전달하는 것이며 d는 그 책을 ‘순이’에게 ‘영수’에게 기타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영수를 선택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은 모두 보통의 기술문과 대립되는 대조문(contrastive sentence)들이다. 이와 같이 동사는 어떤 특수한 발화 환경에서는 대조성의 의미를 가지고 굴절된다. 이것을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규칙-7) 동사 → 대조성(contrastive)

대조문에서는 보통의 문장에서 적용되는 new와 old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⁶⁰⁾ 문장

58) Chafe(1970)는 이러한 문장을 contrastive sentence라 했다.

59) Chafe(1970)는 focus의 의미가 new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new를 사용했다.

60) Chafe(1970)가 설정한 이 규칙들은 모두 가설적인 것이다. Chafe(1973)에서는 memory와 관련시켜서 memory를 surface, shallow, deep의 세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Chafe(1974)에서는 consciousness의 문제를 다루었다.

(83)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83) 철수가 책을 샀다. (밑줄은 focus)

		(대상)	(동작주)
동사		명사	명사
<u>사다</u>		<u>책</u>	<u>철수</u>
(대조성)			(focus)

국어의 topic 또는 focus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것으로 소위 조사 ‘는’과 ‘가’가 있다. 국어의 특징적인 통사현상으로서 단문의 표면구조의 명사 + ‘가’의 형태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현상이 지적된 뒤에 주격중출(主格重出) 또는 이중주어 또는 주제화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연구들이 직접 간접으로 행해졌다.⁶¹⁾ 임흥빈(1972)은 ‘는’은 대조적 대립의 특성을 ‘가’는 배타적 대립의 특성을 갖는다고 했고, 신창순(1975)은 ‘가’를 선택지정, 지정서술, 그리고 순수한 주격 조사의 셋으로 구분하고 ‘는’은 주제를 나타낸다고 하고 대조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채완(1976)은 ‘는’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 ‘는’은 topic과 대조로 사용되는 데 문두에서 강제 없이 사용되었을 때는 topic이 되고 문중에 사용되거나 문두에서 강제를 가지고 사용될 때는 대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우리의 목적은 ‘는’ ‘가’의 의미특성 밝히기에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 우리의 자세한 견해를 피력할 필요는 없겠으나 주제, 대조 또는 topic과 comment의 개념들이 우리의 new와 old의 의미 영역 속에 모두 포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new와 old가 하나의 의미론적 굴절단위인 이상 명사와 동사에 관련되는 의미 특성들이 밝혀져야만 적어도 국어의 new, old 현상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국어의 피동사에도 이런 사실이 관련되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new와 old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작과정동사의 피동화를 설명함으로써 피동사의 의미구조를 밝히게 될 것이다.

3.2.3. 동작과정동사의 피동화*

1. ‘행위자 중심의 표현이 능동문이고 대상(patient)중심의 표현이 피동문이다’라는 피동태에 관한 정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인 이상 국어의 피동사는 동작과정동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전제로 한다. 동작과정동사는 비동작화(deactivative)파생을 입어 과정동사로 파생되기도 하고 굴절단위 new와 old의 적용을 받으면서 피동화 되기도 한다. 이 경우 동사는 그대로 동작과정동사로 남는다. 다음 예문들의 검토를 통하여 피동사의 의미특성을 밝

61) 임흥빈(1974)의 ‘주격중출론을 찾아서’에 그 이전에 연구가 개략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 이후 신창순(1975), 양동휘(1975) Joe J. Ree(1975) 등의 연구가 나왔다.

※ 동작과정동사의 피동화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고찰될 것이다. 1 본래 동작과정동사문 2 파생된 동작과정동사문 3 위치명사를 가진 동작과정동사문 4 수혜주를 가진 동작과정동사문 5 경험주를 가진 동작과정동사문 6 대상이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동작과정동사문 7 피동성의 의미를 가진 관용구적인 표현 8 동사성명사를 어근으로 가진 능동 또는 사동성의 동작과정동사문

혀보기로 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문장들은 대조문(contrastive sentence)이 아닌 보통의 기술문⁶²⁾이다.

- (84) a. 순경이 도둑을 잡았다.
- b. 순이가 접시를 깨었다.

(84)의 문장은 본래의 동작과정동사문인데 a의 대상은 유정성을 b의 대상(patient)은 무정성을 그 특질로서 가졌다. 이들 문장과 관련되는 피동화문은 다음과 같다.

- (85) a. 도둑이 순경에게 잡혀었다. (?잡아지었다) (잡혀지었다)
- b. 접시가 순이에게 깨어졌다.

(84)와 (85)의 차이는 new와 old의 굴절로서 설명될 수 있다. 즉 ‘도둑’이나 ‘접시’사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공유된 정보고 화자의 의식에서 동작주 ‘순경’이나 ‘순이’가 새로운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닐 때 (85)의 문장은 사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85)의 각 동작과정동사들은 동작정보보다는 과정성이 보다 뚜렷한 것으로 생각된다. b문장이 a문장에 비해 어색하게 들리는 까닭은 ‘깨다’ 동사의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깨다’는 그 대상(patient)으로서 유정성의 명사를 갖지 못한다.⁶³⁾ (85)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잡히다’와 ‘잡아지다’의 차이가 무엇인가이다. 즉 이 둘은 동일한 의미를 가졌는가? 만약 서로 다른 의미를 지녔다면 어떤 의미차이를 나타내는가? 우리는 이 두 개의 형태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우선 이것을 동작피동과 상태피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⁶⁴⁾

- (86) a. 옷이 {거의 저절로...? 난폭하게?? 찢을 듯...} 벗어진다.
- b. 옷이 {?거의?? 저절로...난폭하게 찢기듯...} 벗긴다.
- c. 꽃나무가 (아이들에게) {울망줄망 완전히...?? 거칠게?? 빨리} 꺾어졌다.
- d. 꽃나무가 (아이들에게) {??울망줄망??완전히...거칠게 빨리} 꺾이었다.

성광수(1976)에 의하면 울망줄망, 완전히, 거의, 저절로 등의 부사는 동사의 결과 또는 상태 등의 과정을 한정하는 부사이거나 찢을 듯, 난폭하게, 거칠게, 빨리 등의 부사어는 동사의 동작을 주로 한정하는 부사이므로 상태성부사와 잘 결합하는 a와 c는 상태성의 피동이고 동작성부사와 잘 결합하는 b와 d는 동작성의 피동이라는 것이다. 동작성부사와 상태성부사의 도입, 그것은 훌륭한 방향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언어 상식으로는 (86)에서 매우 어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62) 신창순(1975: 148)은 주제를 갖추어서 성립되는 문(文)의 명제문, 주제를 안갖추어도 성립되는 문을 기술문이라 하여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문은 신창순의 것과는 약간 다르다. 즉 우리의 기술문은 대조문이 아닌 보통의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의 의미다.

63) 우리는 ‘깨다’ 동사가 과정동사 ‘깨어지다’에서 사동화(causative) 파생을 입어 동작과정동사로 파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생각이 타당성을 지니게 되면 문장의 어색함은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64) 이러한 접근 방법은 성광수(1976, b)에서 나타난다. 예문 (75)는 여기에서 인용한 것이다.

부사들이 조금도 어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86)의 a~d에 사용된 피동사들은 본래의 동작과정동사 ‘벗다’와 ‘꺾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과정성이 질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비동작화(deactivative)의 결과지 소위 ‘접미피동’과 ‘조동사피동’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 a와 b가 모두 자연스럽게 들리는 상황이라면 그 문장은 동작주가 전제되지 않는 과정동사문이다. c와 d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상황이라면 동작주(아이들)가 전제된 동작과정동사문이다. 그러므로 상태성(정확하게 말해 과정성)과 동작성은 a, b 문장과 c, d 문장을 변별하는 의미특성이다. ‘벗기다’와 ‘벗어지다’의 문제는 결국 ‘지’의 문제로 귀착된다. 우리는 사동사를 다루는 자리에서 ‘게 하’ 사동은 그것이 사동성의 의미에서는 접미사동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게’와 ‘하’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동성에 어떤 의미를 첨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접미 피동과 ‘아 지’ 피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그것들이 피동성의 의미 영역 내부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단지 ‘아 지’에는 피동성의 의미 밖에 있는 어떤 의미가 첨가되는 것이다.⁶⁵⁾

(84)의 문장은 피동작화(deactivative)과생을 입어 다음과 같은 과정동사문으로 파생될 수 있다.

- (87) a. 도둑이 잡혔다.
- b. 접시가 깨어졌다.

a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의미는 순전히 잡혔다는 사실 그 자체 만을 문제 삼을 때 생기는 의미다. 누가 잡았던 누구를 잡았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미 공유된 정보인 도둑이 바로 ‘잡힌’ 것이다. 둘째 의미는 무엇인 잡혔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되는 경우에 생기는 의미다. 이 경우는 대조문(contrastive sentence)으로 ‘도둑’에 focus가 놓이게 된다. b는 (85)의 b문장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는 과정동사문이다.

2. 다음 예문은 본래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동작과정동사문과 본래 과정동사에 파생된 동작과정동사문이다.

- (88) a. 인부들이 도로를 넓혔다.
- b. 철수가 얼음을 녹였다.

이 문장들은 피동굴절을 입어 다음과 같이 피동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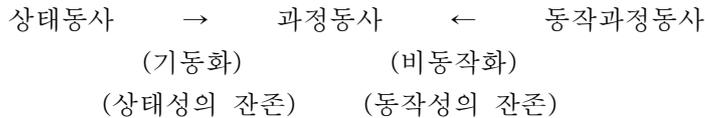
- (89) a. 도로가 인부들에 의하여 넓혀졌다.
- b. 얼음이 철수에 의해 녹여졌다.

(88)에서는 동작주로서 old이던 ‘인부들’과 ‘철수’가 (89)에서는 new로 굴절되었으며 (88)에서는 대상(patient)으로서 new이던 ‘도로’와 ‘얼음’이 (89)에서는 old로 굴절되었다. (88)의 문장은 또한 비동작화과생을 입어 다음과 같은 과정동사문으로 파생될 수 있다.

65) 물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피동성의 그 바깥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다.

- (90) a. 도로가 넓혀졌다.
b. 얼음이 녹여졌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문장과 ‘도로가 넓어졌다’ ‘얼음이 녹았다’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가다. 이 차이는 기동화와 비동작화의 차이로서 설명될 수 있다. 즉 기동화과생을 입은 과정동사에는 상태성의 의미가 잔존하지만 비동작화과생을 입어서 된 과정동사에는 동작성의 의미가 잔존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동화가 상태성의 의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동작화 역시 동작성의 의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3. 다음 문장은 위치명사를 가진 동작과정동사문이다.

- (91) a. 철수가 마당에 물을 뿌린다.
b. 농부들이 논에 벼를 심는다.

위의 문장이 피동굴절을 입으면 new이던 ‘물’과 ‘벼’가 old로 기능하면서 문장의 주어가 된다. 보통의 기술문에서는 위치명사가 old로서 기능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문장의 topic이 되면 old로서 기능할 수 있다.

- (92) a. 물이 철수에 의해 마당에 뿌려진다.
b. 벼가 농부들에 의해 논에 심어진다.
c. 마당에는 철수가 물을 뿌린다.
d. 논에는 농부들이 벼를 심는다.

(91)의 문장들은 비동작화과생을 입어 과정동사문을 과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명사는 여전히 new로서 기능하지만 topic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old의 기능을 갖는다.

- (93) a. 물이 마당에 뿌려진다.
b. 벼가 논에 심어진다.
c. 마당에는 물이 뿌려진다.
d. 논에는 벼가 심어진다.

4. 다음 문장은 수혜주를 가진 동작과정동사문이다.

- (94) a. 선생님이 영수에게서 책을 빼앗았다.
b. 철수가 순이에게 선물을 주었다.
c. 철수가 개에게 밥을 주었다.

이들 문장에서 대상(patient)을 주어로 내세워 old로서 기능하게 하면 다음과 같은 피동굴절을 입는다.

- (95) a. ?책이 선생님께 의하여 영수에게서 빼앗겼다.
- b. ?선물이 철수에 의해 순이에게 주어졌다.
- c. ?밥이 철수에 의해 개에게 주어졌다.

(95)의 문장들이 어색하게 들리는 까닭은 이 문장들이 수혜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혜주와 대상(patient) 가운데 수혜주가 먼저 피동화문의 주어로 등장하여 old의 기능을 갖는 다음 문장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 (96) a. 영수가 선생님에게 책을 빼앗겼다.
- b. 순이가 철수에게 선물을 받았다.
- c. ?개가 철수에게 밥을 받았다.

c의 어색함은 수혜주 ‘개’의 의미에서 비롯된다. 비인간으로서의 ‘개’는 ‘밥’을 주명 먹는 것이지 주는 ‘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b는 피동화가 아니다. 수혜성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동사 ‘주다’가 피동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antonym 파생에 의해 new와 old의 기능을 바꾼다. ‘사다’ ‘팔다’ 등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리고 수혜성의 동작과정 동사들은 비동작화 파생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선물이 주어지다’ ‘책이 사지다’ ‘책이 받아지다’ 등은 비문법적이거나 문법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동작화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 책이 잘 팔린다’와 같은 경우에는 비동작화 파생을 입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⁶⁾

5. 다음 문장은 경험동사가 사용된 능동사문이다.

- (97) a. 철수가 (먼) 산을 본다.
- b. 철수가 (답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

이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동문은 다음과 같다.

- (98) a. 산이 보인다.
- b. 소리가 들린다.

(98)의 문장은 모두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화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경험주로서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97)과 (98)은 엄밀하게 말해서 서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97)의 경험주는 분명히 ‘철수’인데 (98)의 경험주는 화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문장 (97)에 대응하는 피동사문은 기호형(嗜好形)이 아니며 (98)에 대응하는 능동사문 역시 기호형이 아니다.⁶⁷⁾ 여기에서 우리는 피동사문을 기호형으로 하는 특별

66) ‘허리띠를 늦추다’ ‘신분을 밝히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팔리다’도 ‘팔다’에 직접 대응되는 피동화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 경우를 찾아보았다.

6. 다음은 대상(patient)이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 (99) a. 철수가 영희의 팔을 잡았다.
- b. 철수가 영희를 팔을 잡았다.
- c. 영수가 순이의 책을 찢었다.

위 문장에서 a와 b는 불가양성(inalienable) 소유관계가 c에는 가양성(alienable)의 소유 관계가 대상(patient)에 나타나 있다. (99)에 대응하는 피동사문은 다음과 같다.

- (100) a. 영희의 팔이 철수에게 잡혔다.⁶⁸⁾
- b. 영희가 팔을 철수에게 잡혔다.
- c. 순이의 책이 영수에게 찢기었다.

(99)의 문장에서는 old였던 동작주(agent) ‘철수’ ‘영수’가 (100)에서는 new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99) a, c에서는 new였던 대상(patient) ‘영희의 팔’ ‘순이의 책’이 (100)에서는 old로서 기능하며 (99) b에서는 new였던 소유주 ‘영희’가 (100) b에서는 old로 기능한다. (100)의 b에서 ‘영희’와 ‘팔’이 동사에 대해 가지는 의미기능이 어떻게 다른가?가 문제된다. 이것을 macro-micro(whole part)의 관계로 보아 같은 의미기능을 갖는다고도 하고(양인석, 1972) 속격의 주제화로 설명하기도 하고,(임홍빈, 1972) 격문법 이론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격(D와 O)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성광수, 1974) 우리는 ‘영희의 팔’과 ‘영희를 팔을’을 서로 다른 의미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영희를 팔을’은 (영희를 [(영희의) 팔을])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영희의 팔’에서는 그 전체가 ‘잡다’에 대한 대상(patient)이 되지만 ‘영희를 팔을’에서는 영희는 경험주⁶⁹⁾(experiencer) ‘팔’은 대상(patient)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동작주와 경험주가 나타나는 문장의 대상(patient)은 일반적으로 new의 기능을 갖는다. (100) b에서 ‘팔’이 old로서 기능하려면 경험주 영희는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경험주는 화자 자신이거나, 화자와 청자가 수혜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어서 화자가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100)의 b와 비슷한 의미구조를 가진 문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음에서 a, b, c는 능동사문이고 a', b', c' 등은 피동사문이다.

- (101) a. 아이가 어머니를 (어머니의) 젖을 물렸다.
- a'.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었다. (물리어졌다)
- b. 호랑이가 포수를 (포수의) 팔을 잘랐다.
- b'. 포수가 호랑이에게 팔을 잘리었다. (잘리어졌다)

67) (97)은 ‘산이 철수에게 보인다’ (98)은 ‘내가 산을 본다.’인데 과거의 경험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경우에는 자주 사용될 수 있다. ‘산이 철수에게 보였다.’ ‘내가 산을 보았다.’

68) 잡히다. 물리다. 빨리다. 안기다 등은 사동과 피동으로 양용(兩用)될 수 있다. 서울 방언에서는 이들이 구별되지 않으나 경상도 방언에서는 tension(사동)과 lax(피동)로 구별된다.

69) 이 경우 경험주는 순수한 의미의 경험주와는 약간 다르다. 국어에서는 사람과 그 사람의 몸 부분이 경험주-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나는 배가 아프다, 철수는 등이 가려웠다 등)

- c. 아이가 어머니를 (어머니의) 손가락을 빨았다.
- c'. 어머니가 아이에게 손가락을 빨리었다. (빨리어졌다)

(101)의 a', b', c' 문장은 사동사문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애매성을 불러일으킨다. 이 애매성을 피하기 위하여 '물리었다' '잘리었다' '빨리었다' 대신에 '물려졌다' '빨려졌다' '잘려졌다'⁷⁰⁾ 등이 기호형(嗜好形)으로 사용되며 격표지 '을' 대신 '이'가 사용되기도 한다. 가양성(alienable) 소유 관계 (99)의 c도 (99)의 b와 같은 피동굴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유주의 의미특성에 따라 어떤 제약을 받는다.

- (102) a. 순이의 책이 영수에게 찢기었다.
- ?a'. 순이가 책을(이) 영수에게 찢기었다. a". 책이 영수에게 찢기었다.
- b. 그 건물의 벽이 인부들에게 헐리었다.
- *b'. 그 건물이 벽을(이) 인부들에게 헐리었다. b". 건물이 인부들에게 헐리었다.
- c. 한국의 영토가 일본에게 짓밟혔다.
- c'. 한국이 영토를 일본에게 짓밟혔다.

(102)의 a'가 어색한 까닭은 순이와 책의 관계가 가양성(可讓性)이기 때문이다. 경험주가 없는 a"는 자연스런 문장이 된다. b'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건물은 무정성(-animate)'으로서 경험주가 될 수 없으며, '건물'과 '벽'과의 관계가 가양성인데서 비문법성은 비롯된다. 이러한 제약을 갖지 않는 b"는 자연스런 문장이다. c'가 자연스런 문장인 까닭은 '한국'이 잠재적동작주(potent)로서 기능하여 유정성(animate)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7. 다음 문장은 본래의 동작과정동사문이 비동작화 파생을 입어 과정동사문이 된 것인데 본래의 동작과정동사문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들이다.

- (103) a. 벽이 옷에 걸렸다. (누가 옷을 벽에 걸다)
- b. 땅바닥에 바지가 끌린다. (누가 바지를 땅바닥에 끈다)
- c. 해변에 파도가 밀린다. (무엇이 파도를 해변에 민다)
- d. 날씨가 많이 풀린다. (무엇이 날씨를 많이 풀었다)⁷¹⁾

(103)의 각 문장들은 동작주(agent) '누구' 잠재적 동작주(potent) '무엇'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대상(patient)에 대한 과정만을 문제 삼는다. 그리고 어떤 문장은 동작주(대부분이 potent)를 가진 피동성의 동작과정동사문으로만 주로 사용된다.⁷²⁾

- (104) a.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린다.
- b. 종이가 바람에 불린다. (불려 날아간다)

70) '잘리다'와 '잘려지다'의 차이는 단순피동과 이중피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동인 한에서는 '잘리다'와 '잘려지다'가 동일한 의미영역을 차지한다. 단지 '잘려지다'에는 과정성의 의미가 다시 첨가된다. 그리하여 '잘리다' 보다는 '잘려지다'에 과정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71) '날씨가 풀렸다'와 '문제가 풀렸다'에서 '풀렸다'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날씨가 풀렸다'는 '독감에 걸렸다'처럼 하나의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것이다.

72) (103)과 (104)에서는 어순이 new와 old의 기능을 결정해 주고 있다. 국어의 자유어순(自由語順)이 가지는 의미는 new, old 굴절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생각된다.

c. 천둥소리에 유리창이 흔들린다.

(104)에서 ‘바람’ ‘천둥소리’는 잠재적동작주(potent)로서 기능한다. 이들은 방격(方格)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들 문장에 대응하는 능동사문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8. 다음에서는 동사성명사(verbal noun)를 어근으로 가진 능동성 또는 사동성의 동작과정 동사에 대해 고구할 차례다.

(105) a. 철수가 그 학교에 입학하였다.

a'. 철수가 그 학교에 입학되었다.

b. 철수가 부산에 도착하였다.

b'. 철수가 부산에 도착되었다.

(105)의 a, b와 a', b'는 능동과 피동의 대응 관계에 있는 문장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능동성의 과정동사문이다.⁷³⁾ a와 a', b와 b'의 의미 차이는 a, b가 과정성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a', b'는 과정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별된다.

(106) a. 철수가 순이를 설득하였다. (설득시켰다)

a'. 순이가 철수에게 설득되었다. (설득되어졌다)

b. 철수가 그 사실을 미화시켰다.

b'. 그 사실이 철수에게⁷⁴⁾ (철수에 의해) 미화되었다. (미화되어졌다)

c. 아버지가 철수를 공부시켰다.

*c'. 철수가 아버지에 의해 공부되었다. (공부되어졌다)

(106)의 a, b, c는 모두 사동사문이고 a', b', c'는 이에 대응하는 피동사문이다. a', b'가 문법적인 문장인데 비해 c'가 비문법적이 까닭은 ‘공부시키다’에서 말미암는다. 즉 a와 b는 동작과정동사문인데 비해 c는 동작동사문이기 때문이다. a'와 b'의 ‘순이’와 ‘그 사실’은 new이던 것이 피동굴절을 입어 old로 기능하고 old이던 철수는 new로 기능한다. 그리고 a'와 b'가 동작주(agent)가 전제되지 않는 문장 즉 ‘순이가 설득되었다.’ ‘그 사실이 미화되었다’로 나타나면 그것은 비동작화(deactivative) 과정을 입어 과정동사문으로 파생된 것이다. ‘미화되다’와 ‘미화되어졌다’는 피동성의 의미에서는 일치하고 단지 후자는 과정성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107) a. 검찰이 죄수를 감금했다.

a'. 죄수가 검찰에게 감금당했다. (감금되었다)

b.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한다.

b'.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존경받는다. (존경된다)

c. 어머니가 철수를 꾸중하였다.

73) 서정수(1975)는 ‘입학’은 동작성으로 ‘도착’은 과정성으로 보았으나 우리는 이들을 모두 과정성으로 본다.

74) 피동사문에서와 ‘에게’와 ‘에 의해’의 의미차이는 김영희(1977: 24-28)에서 고구되었다. ‘에게’는 약한 단언 서술이 문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극적 관여 또는 소극적 행위와 관련되고 ‘에 의해’는 강한 단언 서술문장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적극적 관여 또는 적극적 행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c'. 철수가 어머니에게 꾸중들었다.⁷⁵⁾ *(꾸중되었다)

(107)의 각 문장에 사용된 수혜주(beneficiary) ‘죄수’ ‘선생님’ ‘철수’는 능동문에서는 new로 피동문에서는 old로 기능한다. 그리고 a', b', c'의 각 문장에서 동작주(agent) ‘경찰’ ‘학생들’ ‘어머니’가 전제되지 않고 단순히 대상(patient)이 처해 있는 조건만을 전달하게 되면 그 문장은 비동작화(deactivative) 과정을 입은 과정동사문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되다’ ‘당하다’ ‘받다’ ‘듣다’의 의미특성을 밝히는 일이다.⁷⁶⁾ 우리는 우선 ±수혜성의 의미를 변별자질로서 사용할 수 있다. [-수혜성]은 ‘존경되다’ ‘감금되다’ 등을 포용해 간다. 다시 [+수혜성]은 그 하위 자질로서 [+이로움]을 가진다. [+이로움]은 ‘존경받다’ 등을 포용해 간다. 다시 [-이로움]은 ‘그 하위 의미자질로서 [±언어적]’을 가진다. [+언어적]은 ‘꾸중듣다’ 등을 포용해 간다. 마지막으로 남은 [-언어적]은 ‘감금당하다’를 포용한다. 이들의 의미자질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 수혜성]	[+ 이로움]		존경받다……
	[- 이로움]	[+ 언어적]	꾸중듣다……
		[- 언어적]	감금당하다…
[- 수혜성]			감금되다……

75) (107) a의 예로는 구타, 감금, 해고, 결박 등이, b의 예로는 존경, 환영, 축복 등이, c의 iP로는 꾸중, 잔소리, 책망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소박맞다, 도적맞다, 욱보다 등이 있는데 우리는 도적맞다, 욱보다 등을 피동사로 보지 않는다. 단지 피동성을 가진 관용구로 취급한다. 이들에 대응하는 능동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다른 것이다.

76) 최현배(1971)는 ‘되다’는 ‘절로됨 또는 할 수 있음’, ‘당하다’ ‘받다’는 ‘이해(利害) 또는 뜻에 어그러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고, 성광수(1976a)는 ‘당하다’는 ‘외형적 동작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성’, ‘받다’는 ‘추상적 행위성’, ‘듣다’는 ‘음성적 대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여기서 ‘당하다’ ‘받다’ 등의 의미는 물론 선행명사와 결합시킨 경우의 의미다.

제4장 결론

이 연구에 나타난 우리의 사고과정은 두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것이다. 먼저 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사고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의 의미구조는 인간의 개념세계를 반영한 것으로서 두 개의 중요한 영역 즉 동사의 영역과 명사의 영역으로 이분된다. 이 둘 중 동사의 영역이 기본이 된다.

2. 동사의 의미구조는 기본자질면에서 선택(selectional) 단위, 파생(derivational) 단위, 굴절(inflexional) 단위로 나누어지며, 명사와의 관계에서 경험성(experiential), 수혜성(beneficial), 보충성(complemental) 등의 하위 의미자질을 갖는다.

3. 국어 동사의 선택단위에는 상태동사(stative), 과정동사(process), 동작동사(action), 동작과정동사(action-process)가 있으며 국어동사의 파생단위에는 기동화(inchoative)파생, 결과화(resultative)파생, 사동화(causative)파생, 비동작화(deactivative)파생이 있다. 그리고 동사와 명사의 결합관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역할은 대상(patient)과 동작주(agent)가 담당하며, 동사의 의미특성에 따라 경험주(experiencer), 수혜주(beneficiary), 도구명사(instrument), 위치명사(location), 보충명사(complement) 등이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국어동사의 의미구조는 그 전체적인 윤곽에 있어서는 Chafe(1970)의 이론과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세부에 있어서는 다른 점도 많다. 즉 국어에는 포괄성의 동사(ambient verb), 비과정화(deprocessive) 파생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사동화파생은 과정동사에만 적용된다는 Chafe(1970)의 이론과는 달리 국어의 동작동사 및 동작과정동사도 사동화파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예다. 또한 Chafe(1970)의 이론을 국어 동사의 의미구조분석에 적용한 Rafael, Abasolo(1974)와도 많은 불일치를 보인다. 이 불일치는 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Abasolo의 국어에 대한 무지 즉 내성(introspection)의 부족에서 비롯되었거나 우리의 미숙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불일치는 앞으로의 자세한 검토를 기다린다.

국어의 사동사와 피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해 우리가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국어의 사동사는 상태동사에서, 과정동사에서, 동작과정동사에서 파생된다.

5.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는 그것이 표면구조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일단 과정동사로 파생되고 그것이 다시 동작과정동사로 파생된다. 이러한 사동사는 과정성, 동작성 및 ‘일으킴’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그리고 경험성의 상태동사들 중 일부는 자극체로서의 대상(patient)이 사동사문에서는 잠재적 동작주(potent)로 기능한다. 이러한 사동사는 경험성의 의미자질을 하나 더 갖는다. 과정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도 상태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와 그 의미특성을 같이 한다. 동작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는 동작성과 ‘시킴’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그 문장에 두 개의 동작주가 나타난다. 동작과정동사에서 파생된 사동사는 동작성, 과정성, 수혜성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과 동작성, 과정성 ‘시킴’의 의미자질을 갖는 것으로 이분된다.

6. 국어의 피동사는 동사과정동사에서 파생되거나 굴절된다. 파생될 경우에는 비동작화파생을 입으며 굴절될 경우에는 new와 old 굴절을 입는다.

7. 비동작화파생을 입은 피동사는 본래의 ‘동작성’의 의미는 미약해지고 과정성의 의미가

보다 뚜렷해진다. 이 경우 그 문장에서 동사주(動詞主)는 나타나지 않는다. new와 old 굴절을 입은 피동사는 동작성과 과정성의 의미를 그대로 지니면서 명사의 의미역할에 변화를 초래한다. 즉 old이던 동작주는 new로 기능하며 new이던 대상(patient)은 old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질을 달리하는 동작과정동사문 즉 본래의 동작과정동사문, 파생된 동작과정동사문, 위치명사를 가진 동작과정동사문, 수혜주를 가진 동작과정동사문, 경험주를 가진 동작과정동사문, 대상(patient)이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동작과정동사문, 관용구로 사용되는 피동성의 동작과정동사문, 동사성명사를 어근으로 가진 동작과정동사문들의 피동화에 대해 고구하였다.

언어의 의미가 그 자체의 의미를 신비 속에 숨기고 있는 이상, 의미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일은 심연 속을 헤매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요약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가설로서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는 Chafe(1970)가 수립한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설로서의 의미 그리하여 많은 오류의 내포 가능성(可能性)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언어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 없이는 언어가 지닌 신비의 베일을 벗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석득(1971), <국어 구조론: 한국어의 형태·통사 구조론 연구>, 연세대 출판부.
- 김영희(1977), “단언 서술어의 통사 현상”, <말> 제2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남광석(1962), “사동 피동형의 역사적 고찰”, <국어학 논문집>.
- 박형달(1973), “현대 국어 동사의 동작 참여요소의 통사론”, <어학연구>9권2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성광수(1976 a), “국어 의사피동문”, <관동대 논문집> 4집.
- (1976 b), “국어의 간접피동문”, <문법연구> 3집, 문법연구회.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송병학(1976), “한국어의 도구격”, <언어문학연구> 1집,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 신창순(1975), “국어의 「주어문제」 연구”, <문법연구> 2집, 문법연구회.
- 양인석(1974), “해석의미론 대 생성의미론”, <언어와 언어학> 2, 외국어대.
- 이기동(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 <말> 제2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이규호(1968), <말의 힘>, 제일출판사.
- 이상억(1976),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연구”, <국어연구> 26호, 국어연구회.
- 이승욱(1969), “주어의 통사에 관한 고찰”, <국문학논문집> 3집, 단국대.
- 이용주(1972), <의미론 개설>, 서울대 출판부.
-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6호, 국어연구회.
- (1974), “주격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집, 문법연구회.
- 박종홍(1972), <인식윤리>, 박영사.
- 조병태(1974), “격과 어순 위주의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 비교”, <논문집> 6집, 서울대 교양과정부.
- 채 완(1976), “조사 ‘-는’의 의미”, <국어학> 4집.
- 최현배(1929/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웅(1964), “서기 15세기 국어의 사역 피동의 접사”, <동아문화> 제2집, 동아문화연구소.
- 홍기문(1947), <조선 문법 연구>, 서울신문사.
- Abasolo, Rafael. O. F. M.(1974), <Basic Semantic Structures of Korean>, Washington, Reprinted in Tower Press(1977).
- Chafe, Wallace, M.(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 Press.
- (1973), "Language and Memory", <Language> Vol.49(261-281).
- (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Vol.50(111-133).
- Chomsky, Noam(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The Syntax>, Cambridge MIT Press.
- (1966), <Cartesian Linguistics>, New York Harper & Row.
- (1974), <Reflection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Books.
- Cruse, D. A.(1973), "Some Thought on Agen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9(11-24).
- Dillon, George L.(1977),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Linguistic Semantics>, Prentice-Hall.
- Fillmore, Charles(1968), "The Case for Case" in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ed. Bach/Harms, New York.
- Fillmore, C/Langendoen(eds)(1971), <Studies in Linguistic Semantic>, New York Holt Rinehart.
- Gruber, J. S.(1970), <Studies in Lexical Relation> reproduced by Indiana U. Linguistic Club.

- Halliday, M. A. K.(1967, 1968),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1967), 4(1968).
- Jacobs/Rosenbaum(eds)(1970),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Massachusetts. Blaisdell.
- Jespersen, Otto(1924/1968),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Katz, J.(1972), <*Semantic Theory*>, New York Harper & Row.
- Kuno, S.(1972),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 I. T. Press.
- Kess, J. F.(1976), <*Psycho-Linguistics*>, Academic Press, New York.
- Lakoff G.(1972), "*Linguistics and Natural Logic*", <*Current Papers in Linguistics*>, Vol. III. Kwang Moon Sa.
- Langacker, R. W.(1972), "*Review of 'Meaning and Structure of Language' by Chafe*", <*Language*> 48(134-161).
- Lee, Chung Min(1974),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Seoul, PanKorea Book Co.
-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1 No.1.
- Lee. Hong Bae(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Seoul. Pan-Korea Book Co.
- Lee, Ki Dong(1975), "*Lexical Causative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Vol.11 No.1, Seoul National U.
- Lyons, John(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 Press.
- (1977), <*Semantic D*>, London, Cambridge U. Press.
- Macawley, J. D.(1967), "*Meaning and the Description of Language*", <*Current Papers in Linguistics*> Vol.1, Kwang Moon Sa.
- Martin, Samuel(1954), <*Korean Morphophonemics*>, Society of America.
- Martinét, André(1967), "*Elément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Librairie Aramand Colin.
- Palmatier, R. A.(1972), <*A Glossary for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New York.
- Park Byung-Soo(1974), "*The Korean Verb 'ha' and Verb Phrase Complementation*", <*Language Research*> Vol.X No.1, Seoul National U.
- Ramstedt(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 Shibatani, M.(1973), "*Semantics of Japanese Causativization*", <*Foundation of Language*> Vol.9 NO.3.
- (ed)(1976), <*Syntax and Semantics 5*>, Academic press.
- Sohn, Ho-Min(1973), "*Coherence in Korean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Language Research*> Vol.9 No.2, Seoul National U.
- Yang Dong-Whee(1975), <*Topicalization and Reativization in Korean*>, Seoul Pan-Korea Book Co.
- Yang In-Seok(1974), <*Korean Syntax*>, Seoul Paek-Hap Sa.
- (1974), "*Two Causative Form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Vol.10 No.1, Seoul National U.

<ABSTRACT>

The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Causative Verbs and Passive Verbs

Park, Yeong-Mok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causative verbs and passive verbs. To approach this end I have analyzed the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verbs on the basis of the theory of W. L. Chafe(1970). The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verbs is analyzed as follows:

1. The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verbs consists of selectional unit, derivational unit, and inflectional unit.

2. The selectional unit of Korean verbs comprises *stative*, *process*, *action*, and *action-process*. The *ambient* verb of W. L. Chafe(1970) is not to be seen in Korean.

3. The derivational unit of Korean verbs comprises *inchoative*, *resultative*, *causative* and *deactivative*. The *deprocessive* of W. L. Chafe(1970) is not seen in Korean.

4. Semantic role of nouns to Korean verbs are indicated by *agent*, *patient*, *experiencer*, *beneficiary*, *instrument*, *complement* and *location*, which are accompanied by case-marker in surface structure.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verbs, I have analyzed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causative and passive verbs as follows:

1. Korean causative verbs derive from *stative*, *process*, *action* and *action-process*.

2. The causative verbs derived from *stative* and *process* verbs have the semantic feature of +*process*, +*action*, +*cause*. Especially the causative verbs derived from Psychological *statives* or *process* verbs have an additional semantic feature of +*process*, +*action*, +*cause*, +*experiential*. The causative verbs derived from *action* verbs have the semantic feature of +*action*, +*cause*, +*order* and two agents. The causative verbs derived from *action-process* verbs have the semantic feature of +*action*, +*process*, +*cause*, +*beneficial* or that of +*action*, +*process*, +*cause*, +*order*.

3. There are two types of Korean passive verbs; One is derived from *action-process* verbs and the other inflection of *action-process* verbs.

4. The former is the *action-process* verbs which have lost activity on account of *deactivative* derivation, and the latter is the *action-process* verbs to which the semantic role of nouns is changed on account of *new* and *old* inflection.

I firmly believe that we could not enter into the mystery of language without the insight into the meaning of language.